

리아후나

표지:

**세상의 조류 위로
올라섬, 20쪽**

십대들이 지도력을 행사하도록 돕는
열 가지 방법 10쪽

왜 단 한 번도 안 됩니까? 26쪽

오늘로써 영원히 함께함, 친14쪽

KOREAN



4 15022 86320 3

02286 320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 판 공식 잡지임

제일회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심이사도 정원화: 본이드 케이 패커, 엘 톨 페리,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블라드, 조셉 비 웨스턴,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해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앨 쿡, 디 도드 크리스토퍼슨

편집인: 제이 이 젠슨

고문: 게리 제이 코울먼, 요시히코 기무찌, 제럴드 앤 렌드, 더블류 더글라스 쉐웨이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엠 프라시네호트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선임 편집인: 래리 힐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제니퍼 앨 그린우드

공동 편집인: 라이언 카, 아담 시 울슨

보조 편집인: 수잔 배렛

편집 스태프: 크리스티 반즈, 린다 스탈 쿠퍼,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라렌 포터 곤트, 캐리 캐스틴, 제니퍼 매디, 엘리자 메릴, 마이클 알 모리스, 셸리 제이 오데커, 주디스 엠 팔러, 비비안 폴슨, 조슈아 제이 퍼기, 켄 유 핀보로우, 리처드 엠 롬니, 돈 앨 설, 제넷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워렌

선임 비서: 로벨 튜서

마케팅 부장: 래리 힐러

관리 미술 책임자: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코트 밴 캠퍼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켈리 알 아로요, 콜레트 네베커 오운,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베틀,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자널드 제이 크리스티안, 캐슬린 하워드, 에릭 피 존슨, 드니스 커비, 스코트 웨이, 지니 제이 넬슨, 사진 인쇄: 제프 앨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치워크

배우 책임자: 랜디 제이 벤슨

통 관: 제507호, 제45권, 제6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8년 6월 1일 (월간지)

발행인: 최 윤 환

편집인: 박 승 호

번역 책임자: 박 환 수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는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과 ☎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첨판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로 출판될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신칼라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텔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히티어, 헝가리어, 힌디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08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June 2008 Vol. 32 No. 6.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age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성인

- 2 제일회장단 메시지: 권고에서 안전한 길을 찾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8 물문경의 열매 리처드 지 힝클리 장로
- 10 양떼를 돌봄: 청소년에게 지도력의 기술을 가르침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과
엠 러셀 블라드 장로
- 20 성결하게 되기 위해 시간을 냄 아담 시 울슨
- 25 방문 교육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세의 실재성을 가르쳐준다
- 34 치유의 영적인 요소 알렉산더 비 모리스 장로



20 성결하게 되기 위해 시간을 냄

표지
사진 촬영: 아담 시 울슨

친구를 표지
삽화: 브랜든 도만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가르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다음 제언들은 가정에서만뿐만 아니라 교회 공과반에서도 사용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반원들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성결하게 되기 위해 시간을 냄”, 20쪽: 다음 활동을 통해 우선순위의 것들을 먼저 하기 위하여 시간을 내는 것에 대한 개념을 가르친다. 가족에게 빈 플라스틱 통과 모래, 자갈, 돌을 보여준다. 통에 모래를 넣고, 그 다음 자갈과 돌을 넣는다.(이번 시도에서 돌이 모두 들어가지 않도록 그 양을

계획한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기 위한 시간부터 계획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똑같은 활동을 다시 한다. 이번에는 돌덩어리를 먼저 넣고, 자갈을 넣은 후, 남은 자리에 모래를 채워넣는다. 기사를 활용하여 우리의 생활에서 돌, 즉 우선순위의 것들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이들을 위한 시간을 낼 것인지 토론한다.

“성장을 위한 부름”, 28쪽: “간증에 대한 교훈” 부분을 소리내어 읽는다. 소아레스 장로가 어떻게 그의 간증을 얻었으며 그것이 그가 복음의 표준대로

39 마음의 변화를 경험함

39 물문경의 교훈: 마음의 변화를 경험함
키스 케이 힐비그 장로

44 후기 성도의 소리
내가 교회에 관해 가장 좋아하는 것
이사벨 알퍼트
월급날까지 남은 한 주 줄리 시 도날슨
어디서 또 다른 물문경을 찾을 수 있을까?
커티스 클라인만
내 자녀들의 기도
버지니아 아우구스타 데 파두아 리마 페레이라





감람나무의 비유, 브래드 티어

이 폭판은 골본경의 야곱서 5장에 나오는 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운명을 상징하는 가꾼 감람나무와 들감람나무에 대한 선지자 지노스의 비유를 인용한다.

야곱은 “이것이 나의 예언이니-이 선지자 지노스가 이스라엘의 집에 대하여 말한 바가] ... 정녕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기록했다.(야곱서 6:1)

이번 호에 숨겨진 캄보디아어 정의반 반지를
찾으면서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이
성전에 갈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

- 16 미래를 여는 열쇠 *킴벌리 리드*
- 26 질의응답: "술이나 담배를 딱 한 번 시도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해로울까요?"
- 28 성장을 위한 부름 *울리세스 소아레스 장로*
- 32 자신의 골리앗을 이길
- 48 알고 계십니까?

어린이: 친구들

- 친2 와서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라: 첫번째 시헌 *디이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회장*
- 친4 함께 나누는 시간: 나는 어릴 때 나 자신을 준비하겠다 *린다 크리스텐슨*
- 친6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금판을 받음
- 친8 하나님을 믿는 신앙: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 친11 나의 복음 표준 맞추기 게임
- 친12 심심풀이: 숨은 그림 찾기
- 친13 브라질의 안식일 복장 *네이든 앤 웨이트*
- 친14 단지 하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웬디 엘리스*
- 친16 색칠하기

32

자신의
골리앗을
이길



16 미래를 여는 열쇠

친12 심심풀이



친8 하나님을 믿는
신앙

생활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토론한다. 우리가 간증을 강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나열한다. 간증은
어떻게 우리가 복음대로 살도록
돕는가?

“마음의 변화를 경험함”, 39쪽: 하트
모양의 종이에 “신앙”, “의로움”,
“사랑”, “세상을 극복함”이라고 쓴다.
("거듭남의 축복" 부분을 참고한다.) 네
가지 각각의 원리들이 가족들이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토론한다. 이반의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그러한 변화를 설명한다.
종이 하트의 뒷면에 가족들이 각
원리에 따라 생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열거한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친8쪽:
가족들에게 한 손만 사용해서 신발끈을
매보도록 한다. 그것이 어려운 이유를
토론한다. 이번에는 서로의 신발끈을
매주도록 한다. 함께 일하는 것이
어떻게 그 일을 쉽게 만들었는지
토론한다. 기사를 읽고 이 프로그램을
완성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강화시키는가에 대해 토론한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지도서에서
돌아오는 주에 함께 실천할 하나의
활동을 선택한다.

이번 호의 주제들

페이지 수는 기사의 첫 번째 페이지를 뜻합니다.

친=친구들	신앙, 2, 20, 34
가르침, 1, 10, 28	안식일, 친13
가족, 10, 친14	안전, 2
간증, 8, 28	예수 그리스도, 25, 34
개종, 39	우선순위, 20
기도, 47	전세, 25
다윗과 골리앗, 32	조셉 스미스, 친2, 친6
도전을 극복함, 32, 47	지도력, 10, 48
물몬경, 8, 46, 친6	지혜의 말씀, 26
복장, 16, 친13	청소년, 10, 28
사랑, 44, 45	초등학교, 친4, 친8
선교 사업, 16, 39, 46	치유, 34
선택의지, 26	표준, 친11, 친13
성결하게 됨, 20	
성전, 친4, 친14, 친16	프로그램, 친4, 친8, 친11
성찬, 44	하나님을 믿는 신앙
속죄, 34	
순종, 2, 20, 26	
시간관리, 20	
신권, 16, 28, 34	



권고에서 안전한 길을 찾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구주께서는 그분의 보호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차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것이 몇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제3니파이 10:5 또한 마태복음 23:37 및 교리와 성약 29:2 에도 같은 예가 나와 있음)

주님께서는 이 경륜의 시대에 우리가 안전하도록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던 많은 방법들을 설명하시고는 똑같은 비탄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나의 종들의 입으로, 또 천사들의 성역으로, 또 내 자신의 음성으로, 또 우레의 음성으로, 또 번개의 음성으로, 또 폭풍우의 음성으로, 또 지진과 큰 우박의 음성으로, 또 기근과 각종 역병의 음성으로, 또 큰 나팔소리로, 또 심판의 음성으로, 또 온종일 자비의 음성으로, 또 영광과 존귀와 영생이라는 부의 음성으로 내가 너희를 부르고 영원한 구원으로 너희를 구원하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교리와 성약 43:25)

우리가 안전하도록 인도하시고자 하는 구주의 바람은 끝이 없는 듯 합니다. 그분이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법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한 가지 이상의 수단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기꺼이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기에 합당하게 준비가 되었을 때마다, 선지자의 입을 통해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언제나 그러한 수단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한 권능을 받은 종들은 언제나 그의 백성들을 경고하고 안전한 길을 알려줄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경고

1838년 가을, 미주리 북부 지역에서 긴장감이 고조되었을 때,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안전을 위해 모든 성도를 파웨스트로 불러 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립된 농장이나 흩어진 정착촌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히 혼즈밀이라고 불리는 작은 정착촌의 설립자인 제이콥 혼에게 권고했습니다. 그 당시의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조셉 형제는 당시 방앗간을 소유하고 있었던 혼씨를 통해 그곳에 살고 있는 형제들에게 그 곳을 떠나 파웨스트로 오라고 권고했으나, 혼 씨는 그 말을 전하지 않았다.”¹ 후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그의 기록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권고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구하도록 제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제 권고에 따랐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² 선지자는 그의 권고가 받아 들여지고 지켜졌다면 혼즈밀에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슬픈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는 어디에서 슬픔과 죄로부터 안전을 찾을 수 있는지에 관한 권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안전하도록 인도하시고자 하는 구주의 바람은 끝이 없는 듯 합니다. 또한 그분이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법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한 가지 이상의 수단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기꺼이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고들을 인식할 수 있는 한 가지 열쇠는 그 경고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은 연차 대회에서 적어도 한번 이상은 우리의 선지자가 이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그 말씀에 대한 두 번째 증인이 되거나, 때로는 세 번째 증인이 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블(1895~1985) 회장님께서 가정에서 어머니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들었던 사람들은, 에스라 테프트 벤슨(1899~1944) 회장님께서 그것을 인용하신 것과 고든 비 헝클리(1910~2008) 회장님께서 그 두 분의 말씀을 모두 인용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³

사도 바울은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고린도후서 13:1)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경고가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그것이 증인의 법칙, 즉 권능 있는 증인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그것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그러한 축복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선지자의 권고에서 안전에 이르는 길을 찾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단지 현명한 사람이 좋은 충고를 한다는 정도로 생각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만일 선지자의 권고가 따르기 쉽고 합리적이며, 자신이 바라는 바와 일치한다고 생각되면 받아들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잘못된 충고로 여겨버리거나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하여 자신은 그 권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동기로 영향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아마도 몰몬경에서 코리호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러했듯이, 다음과 같은 말로 비웃고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또 이같이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어리석은 전통을 좇아, 너희 스스로의 뜻대로, 이 백성을 이끌어 내고, 마치 속박에 든 것처럼, 그들을 억누름으로써, 그들의 손의 수고로 너희 스스로를 배불리고자 하며, 그들로 감히 담대함을 가지고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며, 그들로 감히 그들의 권리와 특권을 누리지도 못하게 하는도다.”(앨마서 30:27)

코리호어는, 태초부터 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그릇되게 주장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독립성이라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며 따라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고를 거부할 때 우리가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다른 영향력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온전한 목적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영생과 그분이 갖고 계신 모든 것을 주며 우리를 그분의 사랑의 팔로 안아 다시 본향 가족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고를 거절할 때, 우리는 다른 권세의 영향력을 택하게 되는데, 그의 목적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며 그의 동기는 바로 증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인 도덕적 선택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도록 선택하는 권리라기 보다는, 우리가 선택하는 권능이 무엇이든 그것에 자신을 바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권리인 것입니다.

안전한 곳에 섬

또 다른 그릇된 생각은, 선지자의 권고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하는 것을 단지 좋은 충고를 받아들여 그 혜택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그냥 현재의 상태로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 정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선택은 우리가 서있는 바로 그곳을 바꾸어놓습니다. 그 곳은 더 위험해 집니다. 선지자의 권고를 거절하게 되면 장차 영감어린 권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약해집니다.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돕기로 결정해야 했었다면 그 가장 좋은 시기는 바로 그가 처음으로 부탁했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 후 그가 부탁할 때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영에 대한 민감함이 줄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릴때까지 그의 거듭된 요청은 그들에게는 더욱 바보스럽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때는 돌이키기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영감 받은 권고를 따르는 것을 미루거나, 스스로 그 권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험한 길로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의 권고를 듣고, 기도를 통해 확인한 후, 그 것을 따랐을 때마다 저는 제가 더욱 안전한 길로 나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길을 지나는 동안, 저는 그 길이 저를 위해 준비되었으며, 험한 곳들이 평탄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의 배려로 준비된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셨으며, 때로 그 길은 이미 오래 전에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몰몬경의 시작 부분에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리하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가족의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리하이의 경험은 하나님께서 그 분의 종들을 통해 권고를 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리하이의 가족 가운데 신앙을 갖고 확신시키는 계시를 받은 자들만이 위험과 안전에 이르는 길 모두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신앙이 없는 자들에게 광야로 가는 것은 어리석고 위험한 일로 보였습니다. 다른 모든 선지자들처럼, 리하이는 그의 생이 다할 때까지 가족들에게 그들이 어디서 안전을 찾을 수 있는지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구주께서는 신권의 열쇠를 위임한 자들에게 책임을 지우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열쇠는 우리에게 안전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권고를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쇠를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들의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경고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열쇠는 선지자에서부터 더 작은 인원의 회원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지도자를 거쳐 점점 더 가족 및 개인에 가까워지는 체계를 통해 위임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스테이크를 안전한 장소로 만드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부부는 감독님이 소집한 부모들의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녀들이 직면하고 있는 영적인 위험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기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현명한 제 친구의 음성 이상의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것은 열쇠를 지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경고로써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며 우리 부모들에게 행동하는 책임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신권지도자들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임으로써 그들이 지닌 열쇠를 존중할 때, 우리는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줄 생명줄에 자신을 동여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독생자를 보내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필멸의 상태에 있을 때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것이며 그 중 최악의 경우들이 끔찍한 적들의 유혹으로 야기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듣고자 하는 귀와 순종하고자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구주께서 신권의 열쇠를 위임하신 이유 중 하나입니다.

듣고자 하는 귀를 가집

듣고자 하는 귀를 갖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토마스 비 마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었습니다. 주님은 마쉬 회장과 다른 십이사도 정원회 형제들이 시험

방 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돕기로 결정해야

했었다면 그 가장 좋은
시기는 바로 그가 처음으로
부탁했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 후 그가 부탁할 때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영에 대한
민감함이 줄어 들게
되었습니다.



리 하이의 경험은
하나님께서 그
분의 종들을
통해 권고를 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리하이의
가족 가운데 신앙을 갖고
확신시키는 계시를 받은
자들만이 위험과 안전에
이르는 길 모두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받게 될 것을 아시고,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에
관해 다음과 같은 권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너를 인도할 것이요, 네 기도예 대한 응답을
네게 주리라.”(교리와 성약 112:10)

주님은 살아 계신 선지자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경고를 덧붙이셨습니다. “너희
스스로를 높이지 말라. 나의 종 조셉을 거스려
거역하지 말라. 이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며 나의 손이 그의
위에 있을 것이며, 내가 그에게 또한 너희에게 준
열쇠는 내가 올 때까지 그에게서 취하여 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112:15)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그분의 다른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권고를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큼 행복한 위안을
가져다 주는 것은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비록 행하기 힘든
권고일지라도 그것을 따르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교회 역사에 나오는 레딕 뉴튼 알레드의
이야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윌리와 마틴
손수레 부대를 데려오도록 브리검 영
회장(1801~1877)이 보낸 구조대의
일원이었습니다. 사우스패스 근처의 스위트워터
강가에서 조지 그랜트 대장은 레딕 알레드에게 몇

명의 대원과 마차 몇 대와 함께 그곳에 남아서
손수레 부대를 데려올 구조대를 지원할 준비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구조대는 눈 속에 갇혀서 추위에 떨고 굶주리며
죽어가고 있는 윌리 손수레 부대를 발견했습니다.
구조대의 일부는 계속해서 마틴 손수레 부대를
찾아 나섰고 나머지 대원들은 윌리 손수레 부대가
힘겹게 록키산맥을 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들이
캠프를 치고 얼마 되지 않아 레딕 알레드와 그
일행들이 와서 필요한 도움과 물품을 전했습니다.

그런 후 알레드는 그랜트 대장이 마틴 손수레
부대와 함께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몇 주가
지났지만 그들이 돌아올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보라가 심해지고, 날씨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나빠지자 그들 중 두 사람은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마틴 손수레 부대가
어딘가에서 겨울을 나고 있든지, 아니면 모두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고 다른 모든
일행들에게도 그렇게 하자고 설득하였습니다.
하지만, 알레드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영
회장이 그들을 파견했고, 레딕 알레드의 신권
지도자인 그랜트 대장이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돌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몇 대의 마차에
필요한 물품들을 싣고 솔트레이크 계곡을 향해

떠났습니다. 더 비극적이었던 것은, 이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 솔트레이크에서 그곳으로 가고 있었던 일흔일곱 대의 마차를 되돌려 보낸 것입니다. 방향을 돌린 마차들 중 일부는 빅 마운틴까지 가야 영 회장이 보낸 사람들에게 의해 다시 원래의 목적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레딕 알레드가 월리 손수레 부대를 도운 지 3주가 지났을 때, 그랜트 대장이 마틴 손수레 부대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이 개척자들은 더욱 처참한 상태였으며 수십 명이 이미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랜트 대장의 구조대는 규모가 작고 식량도 별로 남지 않았지만 솔트레이크 계곡은 아직도 320km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레딕 알레드는 그의 임무에 충실함으로써, 가장 힘겨운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도움과 물품들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⁴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뻗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새로운 교회 회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라는 말씀을 듣고 읽게 될 것입니다. 레딕 뉴튼 알레드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비록 불필요해 보이거나 효과가 없을 것 같더라도 계속해서 우정의 손길을 내밀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새로운 회원이 영적으로 지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그곳엔 친절하고 우정의 손길을 내밀 신앙을 지닌 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힘든 상황에서도 권고에 따랐기 때문에 개척자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었던 알레드 형제가, 자신을 향해 힘겹게 다가오는 손수레 부대를 보며 느꼈을 것과 같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확신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증명할 기록은 없지만, 저는 알레드 형제가 기다리는 동안 기도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때 그는 그곳에서 기다리랴던 권고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신앙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의깊게 기도하거나 명상을 한 후에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거나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 같은 권고를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권고를 거부하지 말고, 여러분 가까이 두십시오. 여러분이 신뢰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모래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을 건네 주면서 그 안에 황금이 들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것을 손에 빈틈이 없게 그대로 들고 있다가 부드럽게 흔들어 볼 것입니다. 제가 선지자께서 주시는 권고에 대해 그와 같이 행할 때마다, 얼마 후 금조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저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권의 열쇠가 지상에 회복된 시대에 사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모으실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성취시켜주는 말씀을 어디에서 찾고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알고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또한 우리가 충실하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주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주

1. 필로 디블, "Early Scenes in Church History(초기 교회의 광경)," *Four Faith Prompting Classics*(신앙을 북돋우는 네가지 이야기)(1968), 90쪽
2. *History of the Church*, 5:137.
3. 한 예로써, 스펜서 더블류 캄볼 회장의 가르침(1982), 327쪽 참조: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에게," *리아호나* 1988년 1월호, 12~13번째 단락, "교회의 여성들," *리아호나* 1997년 1월호 참조.
4. 레베카 바트홀로뮤와 레오나르도 제이 어링튼, *Rescue of the 1856 Handcart Companies*, 1992년, 29, 33~34쪽 참조.

가정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공부한 후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면서 이 메시지를 나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레딕 알레드의 충실함에 대한 이야기를 읽는다. 가족 구성원들에게 그들이 그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했을지 묻는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선지자를 따르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는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안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정숙한 복장을 하는 것, 혹은 미디어에서 부적절해 보이는 것들을 피하는 것과 같은 선지자의 권고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 가족들에게 질문한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는 오늘날의 많은 도전들에 대한 권고를 준다.

3. "선지자의 경고"라는 소제목 아래에 있는 두 번째 문단을 함께 읽는다. 가족들에게 가장 최근의 연차 대회를 떠올리라고 한다. 한 명 이상의 연사가 언급한 복음의 원리가 기억난다면 그것을 나누도록 부탁한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에 대한 여러 증인들을 세우시는 시대에 살고 있는 축복을 받았음을 간증한다.

몰몬경의 열매



몰몬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들을 깊이 생각하고 이를 적용해 보는 것은 제 마음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리차드 지 힝클리 장로
칠십인 정원회

몰 문경을 읽을 때마다 저에게 어김없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제 짐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신앙과 소망이 걱정과 우려와 의심을 대신합니다. 삶이 더 밝게 보입니다.

독일에서 젊은 선교사로 봉사한 지 한 두 달쯤 되었을 때 저는 제가 지닌 몰몬경에 대한 간증에 깊은 영향을 준 두 가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가까호호를 하던 중 동반자와 저는 한 유명한 교회의 목사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우리를 집안으로 초대했고 탁자에 앉힌 후 곧바로 열피고 흥분된 태도로 몰몬경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가 하는 말을 대부분 이해할 수 있었으며 그의 말하는 태도에서 분쟁의 영이 느껴지는 것이 분명했지만, 저의 독일어가 유창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 대응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강하고 훌륭한 선교사였던 저의 선임 동반자는 단순히 그 책에 대한 힘있는 간증만을 전했고 우리는 그 집을 떠났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약간은 떨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한두 주쯤 후에 우리는 길 전도를 하다가 만난 한 남자와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약속 시간을 정했고 그는 자기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집은 우리가 파견되었던 민덴 시에서 수 마일 떨어졌지만 여전히 우리의 지역에 속해 있었던 뷔케부르크라는 아름다운 마을에 있었습니다.

때는 겨울이었고, 약속을 잡았던 일요일 아침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내내 차가운 강풍을 맞아가며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춥고 지친 상태로 우리는 그가 살고 있는 아파트 대문의 초인종을 눌렀고, 그는 버튼을 눌러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가 계단을 올라 그의 집에 이르자 그가 우리를 안으로 맞아 주었습니다. 그 즉시 우리는 그 방 안에서 분쟁의 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 주 전 그 목사의 집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영의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를 초대해 준 사람은 우리에게 앉으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잠시 방을 비웠습니다. 그는 여러 판본의 성경책들을 들고 방으로 돌아와서 그 책들을 탁자 위에 놓으며 크고 공격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시겠다 이거지?” 그러더니 창문을 가리키며 고함을 쳤습니다. “종소, 하지만 먼저 당신네 몰몬경을 강으로 던져버리시오!”

그 목사와의 경험을 한 지 한두 주가 흐른 뒤였고, 이번에는 제가 독일어로 한두 문장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두 마디를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도 저의 선임 동반자는 단지 강하고 조용하게 몰몬경에 대해 간증을 전했고 공손하게 그에게 시간을 내준 것에 감사하다고

저

는 읽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명상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저의 노력을
축복하셨습니다. 저에게
간증에 생겼고 그 후로
그것은 결코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하게 자라났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런 후 우리는 그 집에서 나와서,
이번에는 바람을 등으로 맞으며 민덴을 향해
자전거를 몰았습니다.

저는 물문경이 참되다는 것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때는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기간에 연달아
그러한 두 사건을 겪은 후, 제 간증이 그다지
깊지도 강하지도 않다는 사실이 괴로우리만큼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스스로에 대해 또한
물문경에 대해 강하고 설득력있게 간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제 자신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제가 성공적인 선교 사업을 하려면
물문경에 대한 제 간증이 진실되고 강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읽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명상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저의 노력을 축복하셨습니다. 저에게 간증에 생겼고
그 후로 그것은 결코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강하게 자라났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의 경험에 대해 자주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혜롭고 한결같았던 동반자에게 감사하며, 그 무례한 목사아,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저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대던, 다소
광신자 같았던 그 남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40년이 훌쩍 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는 그들의
이름과 그 당시 그들과의 만남을 상세하게 기억합니다. 그들을
떠올릴 때면 제3니파이의 한 훌륭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그같이 너희는 침례를

베풀어, 지금까지 있어온 것 같은 논쟁이 너희
가운데 없게 하고, 나의 교리의 요점에 관하여서도
지금까지 있어온 것 같은 논쟁이 너희 가운데 없게
하라.

“이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다투는 정신을 가진 자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요
분쟁의 아비인 악마에게 속한 자임이라,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여 서로 노여움으로 다투게
하는도다.

“보라, 노여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여
서로 대적하게 하는 이것은 나의 교리가 아니요,
그러한 일을 없이 하는 이것이 나의
교리이니라.”(제3니파이 11:28~30)

또한 저는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훌륭한
말씀들을 생각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갈라디아서 5:22~23)

이러한 것들이 제가 물문경을 읽을 때 경험하는 열매입니다.
물문경을 읽고,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교리를 숙고하며 이를 제 생활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은 제 마음과 영혼에 “큰 변화”(모사이아서 5:2;
앨마서 5:14)를 가져오며, 그러한 변화는 제가 좀 더 잘 할 수
있고, 더 친절하게 되며, 덜 비판적이고 더 관대해지며 주님께서
주신 훌륭한 축복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겠다는 결심을 하도록
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물문경의
열매입니다. ■

양떼를 돌봄

청소년에게 지도력의 기술을 가르침



제일회장단 제2보좌인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와의 인터뷰에서
발췌함.

몇몇 청소년에게 어른이 된다는 것은
멀게만 느껴진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자라나는 세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자 라나는 세대가 굳건한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끌며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오도록 준비시키는
것은 중요한 책임이며, 그것은 지도자, 교사,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이렇게
설명한다. “교회 안에서 지도력을 개발하는 책임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청소년이 십대
시기를 지나 성인으로 자라고 성숙해 가는 동안
교회는 청소년에게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만, 그것의 시작은
바로 가정에서부터입니다.”

본 기사에서 벨라드 장로와 제일회장단
제2보좌인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그들의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에게
지도력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과 관련된 열 가지
원리들을 소개한다.

1. 가정에서 시작한다

벨라드 장로는 가정에서 지도력을 가르치는

것은 부모가 식사를 준비할 때나 집 안의 물건을
고치는 것과 같은 아주 단순한 상황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제 생각에는, 비록 자녀가 어릴지라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들을 데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가까이에서 인생에 대한 많은 것과
생활하는 방법을 터득하며 자랍니다. 이는 또한
자녀들이 스스로를 가족 평의회의 일원이라고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청소년의 가정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그러한 상황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들을 양육하고
있을 것이며, 그가 바로 그들에게 생활의 방법과
지도력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청소년이 교회의
회원이고 부모가 비회원인 경우라도 복음을
배우는 일이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와드 또는 지부의 지도자는 청소년의 부모가
회원이든 아니든 그들을 초대하여 자녀들의 교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이미 존재하는
프로그램에서 가장 좋은 방법들을 찾을 수 있다.

“지도자는 교회가 이미 만들어놓은 도구들, 즉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소책자와 하나님에 대한



가 르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그것이 비록 작은 모임에서일지라도 꼭 필요한 것이다.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가르치는 것이 지도력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의무 및 개인발전 프로그램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부모 및 지도자를 위한 지도서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지도력의 기술을 개발하도록 돕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라고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말한다. “이러한 도구들을 청소년의 가정에 소개하십시오. 부모에게 그들의 자녀를 도와 그 안에 제시된 목표와 임무, 그리고 다른 훌륭한 것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를 위해서는 지도자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부모가 가족을 바탕으로한 잠재적인 지도력을 확립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그들에게 우리가 믿고 성취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것입니다. 그들에게 교회가 가족을 결속시키며 우리를 좀더 그리스도와 함께 만드는 훌륭한 가치들을 제시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 부모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며 ... 이는 우리의 자손들이 그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무슨 근원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게 하려’ (니파이후서 25:26) 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활용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청소년이 지도자가 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2. 평의회에서 가르친다

밸라드 장로는 성인 지도자들이 실질적으로 청소년이 할 책임을 대신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는 “지도자들이 그들의 반원들과 주의 깊게 협의할 때 청소년의 지도력이 성장합니다.”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집사 정원회에 다섯 명의 활동적인 소년들과 그렇지 않은 세 명의 소년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세 명을 활동적으로 만드는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너무나 많은 지도자들이 그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는 대신 지도자는 정원회 회장단과 함께 하는 평의회에서 그 문제를 다루어야 하며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누가 무엇을 할 것입니까?”

“만일 청소년이 감독이나 다른 지도자가 모든 것을 혼자서 처리하고 다른 사람을 참여시키지 않으며 자신이 가진 모든 자원을 평의회에서 나누지 않는 모습을 본다면, 그들은 그것이 바로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감독이 ‘이 와드는 나의 와드이니 내 방식으로 운영하겠다’ 라고 생각하고 와드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 버린다면 이는 큰 비극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는지, 또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자원을 동원하여 함께 일을 해나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3. 가정과 교회에서 가르칠 기회를 제공한다

가르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그것이 비록 작은 모임에서 간증을 전하거나 경전 구절에 관한 생각을 나누고 혹은 복음 원리를 옹호하는 것처럼 간단한 것일지라도, 청소년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말한다. 그는 가르치는 것이 지도력의 핵심이라고 덧붙인다.

“종종 우리의 청소년은 학교에서 유일한 교회 회원이며, 따라서 그들은 자신이 참으로 가치 있는 사람이고 자신의 종교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든 항상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청소년에게 가르칠 기회를 제공하고 복음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용기를 준다면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회의 조직은 영적인 성장의 기회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의 성장의 기회 또한 제공한다.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조종사로서의 자신의 직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직장생활에 있어서 제가 이룬 성취에 도움을 주었던 모든 것을 저는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그는 그와 같은 일이 현재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제 손자들은 교회의 회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시에 반에서 가장 발표를 잘 한다는 평을 듣습니다. 왜냐고요? 그 아이들이 그런 기술을 가정과 교회 모임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종류의 학습은 자신들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4.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다

벨라드 장로는 20대 후반에 감독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저는 커다란 걱정엔 직면했습니다. 전에 한 번도 감독이 되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두 보좌들은 제 아버지 정도의 연배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제가 알았던 모든 감독님들을 떠올리며 그분들의 모범으로부터 제가 존경하고 가치 있게 여겼던 점들을 한데 모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부름 받은 일을 실제로 행하는 것이, 그 임무가 무엇이던간에, 그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줍니다.”

벨라드 장로는 다음 말을 덧붙인다. “새로운 임무에 대하여 두려움이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입니다. 집사정원회 회장으로 임명된 12세의 소년은 다소 걱정이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모임을 진행해야 하지?’ 라고 생각할 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그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엔 실수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 번 하고 나면 그는 자신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큰 결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방법을 알고 나면 바로 그 순간부터 두려움 없이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호트도르프 회장은 또한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해함으로써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인다. “값진 진주에 나오는 모세를 생각해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하나님과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키실 일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그것은 분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청소년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임을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십대였을 때 제가 다니던 지부는 작았기 때문에 선교사가 우리에게 공과를 가르쳤습니다. 그가 했던 한 이야기가 제게 강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러한 종류의 자신감은 여러분이 비록 두려움을 느끼거나 혹은 자신이 그 일을 하기에

부족하다고 느끼더라도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5. 그들의 의무를 배우게 한다

지도자가 청소년 노년의 모임이나 다른 모임에서 사회를 하고, 음악순서를 맡고, 혹은 기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그림자 지도자”가 되어 뒤로 물러나 청소년이 그러한 일을 수행하는 것을 바라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이 더 빨리 혹은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렇게 하는 것은 부모나 지도자에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하도록 내버려두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들이 실수하는 것을 보고 있어야 합니다. 경전에는 ‘나의 백성이 더욱 온전히 가르침을 받고 경험을 쌓으며 그들의 의무와 내가 그들의 손에 요구하는 것들에 관하여 더욱 온전히 알게 하려 함이니라’ (교리와 성약 105:10; 강조 추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범을 보이고 그들이 그것을 배우도록 하십시오. 구주를 생각해보십시오. 그분께서는 우리가 서로 다른 부름을 통해 지상에서 그분의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며 인내하십니다. 우리도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벨라드 장로는 귀환 선교사인 손자가 자기 아파트의 콘크리트 블록으로 된 벽에 액자를 걸고자 했던 경험을 이야기한다. 벨라드 장로는 손자의 아파트로 가서 드릴로 구멍을 뚫고 고정나사를 박는 것을 보여주었다.



“제가 하나를 끝내고 나서 손자에게 다음 나사를 어디에 박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그가 그 위치를 가리켰고,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 거기에 해 보라. 내가 하는 것을 보았으니 이제 네가 해보렴. 여기 드릴을 받거라.’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가 끝냈습니다. 긴장을 했기 때문에, 천천히 해나갔습니다. 제가 했다면 두 배로 빨리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 일을 할 줄 압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가 벽에 걸 다른 것이 생기면 저에게 와서 공구를 빌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그가 그것을 돌려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6. 그들이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한다

청소년에게 그들이 순종하고 봉사하도록 요구 받는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미래에 가족과 교회의 지도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들의 순종과 봉사는 그들의 미래의 가정과 교회에서 맡게 될 책임에 대해서 그들을 준비시키는 이상의 일을 한다. 그것들은 또한 그들이 인생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사명을 성취하도록 준비시킨다.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그와 같은 큰 그림에 초점을 두는 것이 청소년뿐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도 축복한다고 말한다. “때때로 우리는 세부사항에 너무 주의를 기울입니다. 만일 우리의 성인 지도자들이 청소년의 마음과 생각에 우리의 목적과 잠재력이라는 큰 그림을 심어줄 수 있다면 그러한 세부적인 것들은 쉽게 관리가 될 것입니다.”

그는 또한 청소년을 이해하고 그들과 명확하고 친절하게 의사소통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인다. “제가 열 세 살일 때 집사 정원회 회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의 지부 회장님은 복도가 아닌 빈 교실을 찾아 저를 만나기 위해 잠시 시간을 내셨고 그곳에서 저에게 제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회장님은 자신이,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기대하시는 바에 대해 훌륭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 반에 집사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둘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분은 자신을 준비시키고 또한 저를 준비시키기 위해 시간을 내셨습니다. 그것은 50년 전의 일이지만, 저는 지금도 그때 마음에 느낀 감동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제가 성공하길 원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개인적인 주의를 기울였고 또한 시간을 내셨습니다. 그분은 친절하지만 직접적인 지시를 주셨고 후에 그에 대한 확인을 하셨습니다.”

7. 책임감을 확립한다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그분을 흠모하는 자가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자라고 말한다. “우리는 우선 따르는 자가 되는 법을 배움으로써 지도자가 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경전에는 ‘행함을 받[는] 것’ 보다 ‘행해[라]고’ 나와있습니다.”(니파이후서 2:26 참조)

“다음 단계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와 보고하는 원리를 성전에서 배웁니다. 그러나 몇몇 지도자들은 지시를 내리고, 다시 말해 기대되는 바에 대한 친절하지만 명확한 메시지를 준 후에, 확인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일이 완벽하게 처리되지는 않겠지만, 청소년이 노력할 때 그들의 용기를



복돋아주십시오. 청소년은 그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말을 기억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느낌은 기억할 것입니다.”

8. 영감을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한다

밸라드 장로가 젊은 감독이던 시절, 한 아홉 살 난 말쑥꾸러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가 있었다. 몇 주가 지나서 그 교사는 이 소년을 감독실로 데려와서 말했다. “감독님, 여기 감독님의 양이 있습니다. 좀 보살펴주세요.”

밸라드 감독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나 그 순간 떠오른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그 아이에게 초등학교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매주 보고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다. 밸라드 감독이 준 그러한 임무로 인해 아이의 태도가 달라졌다. 소년은 자신이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저는 그 아이가 제 사무실 문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책임감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밸라드 장로는 말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영의 권세로 합당하고 의로운 교사 또는 지도자에게 무엇을 해야 할 지, 무슨 말을 해야 할 지에 대한 영감을 주시므로써, 사람들, 특히 우리의 청소년을 최선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참고로, 그 아홉 살 난 아이는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고 밸라드 장로는 말한다. 그는 선교 사업을 했고 성전에서 결혼했으며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다.

우호트도르프 회장은 영감을 받기 위한 영적인 준비를 하려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비슷한 교훈을 비행기 기장이라는 그의 직업을 통해 배웠다. 그는 747 비행기를 운항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747기를 땅에서 이륙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교사 혹은 지도자에게 있어서 노력이라는 부분은 기도 및 각 청소년 개인의 필요사항을 아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또한 청소년 프로그램이 단순한 재미나 게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시절에 그들이 발전하고 그들이 되어야 할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는 훌륭하고 즐거운 활동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9. 문제들을 집에서 해결하도록 한다

궁극적으로 지도자, 특히 감독단은 와드의 청소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그 부모에게 적절히 조언을 하고 가르칠 책임을 져야 한다. 감독과 지부 회장은 개인적이거나 은밀한 문제들을 드러낼 필요는 없으나 일반적인 우려사항에 관하여 함께 모아놓고 가르칠 수 있다.

밸라드 장로는 말한다. “만일 제가 지금 감독이라면 다섯 번째 일요일에는 신권회와 상호부조회에 가서 부모에게 제가 청소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걱정들을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접견을 하면서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들은 그들과 저 사이의 일이며, 그들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이 문제를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일부 부모는 실제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듣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아야만 합니다.”

10. 청소년의 영원한 잠재력을 깨닫는다

밸라드 장로는 말한다. “우리는 표준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청소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원리들을 가르치는 일차적 책임이 있는 부모들의 표준도 높아졌습니다. 지도자의 표준도 높아졌습니다. 교사의 표준도 높아졌습니다. 지금처럼 문제가 빠르게 늘어나는 세상에서 우리들은 모두 한 계단 높이 올라서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한다.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가르치는 그 자그마한 청남 또는 청녀의 몸 안에는 영원한 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한 자들이며 그분은 모든 그분의 자녀들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들 안에 그러한 간증이 계속하여 불 붙도록 해야 합니다.” ■

밸라드 장로는 새로운 임무에 대하여

두려움이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며, 그 임무를 행하는 것이 그러한 두려움을 없애고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한다.

미래를 여는

이탈리아의 이 젊은 형제는 신권을 행사하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다리를 세우는 일임을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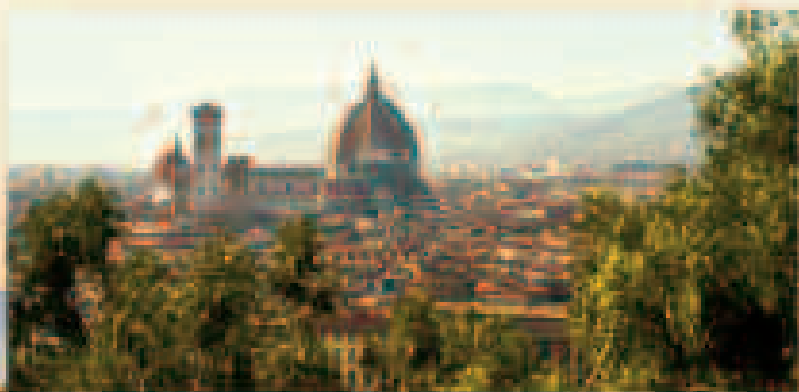
김벌리 리드
교회 잡지

이탈리아의 플로렌스에서는 연인들 사이에 오래된 전통
이 있다. 자물쇠를 베키오 다리에 달고 열쇠를 그
밑을 흐르는 아르노 강에 던져버리는 것인데 이는
그들의 사랑이 영원히 “잠겼음”을 의미한다.



오늘날 자물쇠를 다는 것은 중세에 지어진 이 역사적인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열 여섯 살의
크리스찬 모델리는 베키오 다리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열쇠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1829년
아론 신권과 맬기세텍 신권이 회복되면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권능 있는 신권의 열쇠들이다. 그 열쇠 중
하나를 인봉의 권세이며, 크리스찬은 가족의 사랑이 실제로
영원히 “잠기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의 부모들은
성전에서 신권의 권능을 지닌 자에 의해 인봉 되었고, 그 역시도

언젠가 성전의 축복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는 아론 신권



의무를 다하고 그 신성한 신임에 합당하게 생활함으로써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

순수한 창의력

플로렌스는 예술, 문학 및 과학적 사고가 꽃피었던 르네상스의
근원지로 알려져 있다. 르네상스 시대에 살았던 재능있는
사람들처럼 크리스찬은 음악과 책에서 많은 훌륭한 것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3년간 베이스를 연주했으며
영문학과 철학을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그는 종종 “창의력”이 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일부 십대들이 좋지 못한 음악이나 외설물에
빠져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크리스찬은 신권을 지닌 자신은
그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정결케 하는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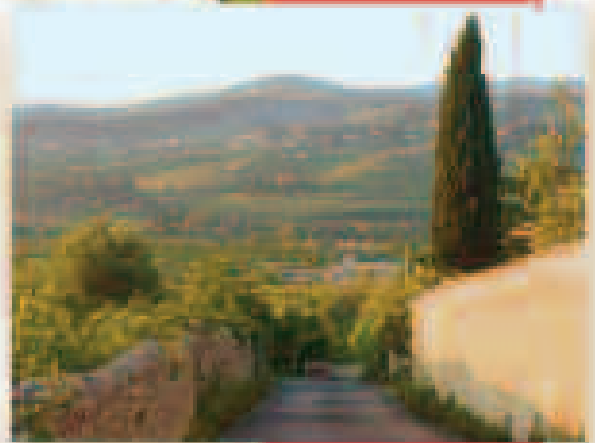
1497년 한 플로렌스의 수도승은 시민들에게 그들의 소유물

열쇠



크리스찬
모렐리는
미술과

건축으로 잘 알려진
이탈리아 플로렌스의 외곽에
있는 작은 마을에 산다. 그는
베이스 연주와 같이 자신의
재능을 발전시키는 것을
좋아한다.





크리스찬은
영적인 시야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는 하나님
이 살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이며 신권의 열쇠가
지상에 회복되었음을 알고
있다. 그러한 지식이 그가
사는 방식을 결정한다.



중 거울이나 값비싼 옷, 예술품과 같은
세속적이거나 성스럽지 못한 것들을 모두
태워버리라고 설득했다. 2008년 크리스찬의
계획은 조금 다르다. 그를 둘러싼 사회를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그는 성신의
불로 자신의 생활을 정결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라고 크리스찬은
말한다. 그의 세미나리반은 반원이 네 명뿐이고,
그들은 너무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살기 때문에
매일 만나지도 못한다. 그는 종종 혼자라는
기분이 들지만 성결하게 하는 힘이 고난을 통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영감을 얻기
위해 반대에 부딪혔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본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던 베드로는 기독교
국가에서 고난을 겪었고, 로마의 감옥에
갇혔으며, 그곳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늘날까지 베드로의 신권의 권능은
그가 지니고 있던 많은 열쇠들로 묘사된다.
베드로처럼, 크리스찬은 진정한 제자가

되고자 하며 그 대가에 상관 없이 자신의 신권
직분에 끝까지 충실하기를 원한다.

크리스찬의 또 한 명의 영웅은 니파이다.
크리스찬은 말한다.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니파이는 여러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한
고난들이 니파이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기도, 경전공부, 그리고 그가 안전한
피난처라고 부르는 가정은 지금의 크리스찬 즉,
신권을 존중하고 선교 사업을 하며 언젠가 의로운
남편과 아버지가 되고자 결심한 한 사람의 후기
성도를 만들어 주었다.

기쁨에 초점을 둬

그러한 목표들에 따라 크리스찬은 자신의
친구들과 구별된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라고 그는 말한다.
불행하게도 그의 친구들은 “공부와 스포츠,
그리고 즐거움을 찾는 일들에 너무 집중하고 있기



장남을 고치는 해수, 켈, 하이디, 블로, 메이크, 힐, 로버트, 크리스틴, 여사복을 입고 하얀색 옷을 입고, 제복을 입고, 복수, 글자: 제임스 이 파우스트 화가의 사진: BUSA PHOTOGRAPHY

때문에” 그가 자신의 믿음이나 종교에 관련된 어떤 말을 하든지 들으려 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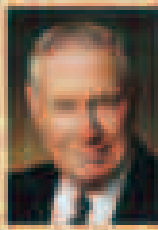
그는 집사로서 성찬을 전달했을 때, 그리고 병에 걸린 친척을 위해 금식했을 때의 영적인 경험들을 기억한다. 그는 가정 복음 교사로서 아버지와 함께 방문한 가족이 “위안을 받고 그들의 메시지를 고마워하는 것을 보면서 그 가족이 방문하기 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때” 커다란 만족감을 느낀다.

이러한 느낌과 경험들은 크리스찬의 많은 친구들이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는 친구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영적인 시야는 그가 절대 잃고 싶지 않은 축복이다. 그가 좋아하는 신약의 이야기에 나오는 구주께서 볼 수 있도록 고쳐주신 장님처럼(요한복음 9:1~11) 크리스찬은 그의 친구들과는 달리 복음이 가져다 주는 기쁨을 분명히 볼 수 있다.

영적인 시야를 공유함

그것이 바로 그가 선교사로 봉사하기를 소망하는 하나의 이유이다. 즉, 자신이 이해하도록 축복을 받은 영적인 사실들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선교사들과 친하게 지냈고 그들이 이동을 갈 때마다 슬퍼하곤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선교사들의 이름을 잊을지는 몰라도 그들과 함께 나눈 경험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이 모두 저에게 훌륭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만난 선교사들처럼 되고 싶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선교사들과 자발적으로 봉사에 참여했을 때, 크리스찬에게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지닌 결의였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오, 관심 없습니다’라고 잘라 말하거나 문을 꽂



세상과 다르게 생활함

“이 교회의 신권 소유자로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 중 하나는 세상과는 다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상에 있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명령의 권세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것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우리가 세상을 물리치는 일을 부디 도와 주실 것을 여러분께 권고합니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1920~2007), 제일회장단 제2보좌, “악마의 목구멍”, 리아호나, 2003년 5월, 52쪽.

하고 닫아버리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다음 집의 문을 두드리고 사람들과 복음의 지식을 나누고자 노력합니다.”라고 크리스찬은 말한다.

크리스찬은 순결하게 생활하고 복음을 공부하는 것뿐 아니라 때에 따라 적절하고 겸소한 복장을 하는 것으로 선교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플로렌스에서 패션은 매우 중요하지만, 크리스찬에게는 값비싼 옷들이 중요하지 않다. 일요일에는 “흰 셔츠와 자켓을 입고 넥타이를 매서 안식일과 주님에 대한 존경을 표시합니다.”라고 크리스찬은 말한다. 그는 그러한 옷차림이 그를 언제나 선교사 표준 복장에 부합되는 모습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 주중에는 원하는 대로 옷을 입는다. 그는 말한다. “저는 유행에 따르는 것을 좋아한 적이 없어요. 제가 합당한 복장을 하고 있다면 무슨 옷을 입든지 상관 없습니다.” 어떤 상표의 옷을 입었는가에 대해 그는 신경 쓰지 않는다.

행복의 열쇠

크리스찬은 멜기세덱 신권과 성전 엔다우먼트를 받고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며 언젠가 자신이 이를 영원한 가족에게 “그의 사랑의 자물쇠가 잠기게” 될 날들을 고대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한다. 세상의 죄와 그로 인한 슬픔이 “그분이 오실 때 끝나게 된다는 사실이 저에게 위안이 됩니다.” 그때까지 크리스찬은 신권의 열쇠를 가진 자들을 존중하고 그를 구주께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는 성약들에 충실할 것이다. 그는 그것이 영적으로 안전할 수 있고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

성결하게 되기 위해 시간을 냄

아담 시 올슨
교회 잡지

홍콩의 길거리에서, 삶은 정신 없는 속도로 지나간다. 낮이든 밤이든 군중들은 질서 정연하게, 그러나 서둘러서 이곳 저곳으로 움직인다. 사람들은 지하철로 쏟아져 들어가고 반대편으로 흘러 나와 일터로, 시장으로, 또는 학교로 향한다.

열심히 일하는 것과 성취를 칭송하는 문화 속에서, 하루라는 시간은 모든 일을 해내기엔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분주했던 일요일을 마치며 청년 독신 성인 친구의 집에서 잠시 쉬는 동안 잉 케이티 카-라이는 한숨을 쉬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 친구들은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세상이 모질고 숨막히는 곳이라는 사실을 배우고 있다. 그것은 사람들을 동시에 여러 다른 방향으로 잡아 끌면서도, 정작 자신은 사람들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든지 상관치 않고 그 시간들을 천천히 채워간다. 우리를 향한 세상의 요구는 영적인 것들을 위한 시간을 거의 남겨두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 보다는 세상의 처분에 따라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멈추지 않는 세상

케이티와 그녀의 친구들은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알고 있다.

28세의 생산 감독관인 차우 슈 와이는 일주일에 70시간을



근무한다. 29세의 유엔 링 싱은 구조 엔지니어로 주당 50시간 이상 일한다. 28세인 케이티 또한 영업 및 고객 서비스 분야에서 주당 50시간 이상 일한다. 쉐인 미스터 라이 밍은 27세의 연구 보조원이고 28세인 쟁 딕 형 룡은 기계 엔지니어이며 둘 다 약 45시간을 근무한다.

게다가 이 충실한 청년 성인 회원들은 교회 부름으로 인한 추가적인 책임을 맡고 있어서 매주 5시간 내지 15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스테이크 청년 회장, 스테이크 청년



홍콩의 유엔 링 싱은
세상의 조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시간을 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다.

회장단 보좌, 와드 주일학교 회장단 보좌, 종교 교육원 평의회
회장과 스테이크 청년 독신 대표가 있다.

이들은 개인의 영적인 재충전을 위한 시간을 내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종종 창의적이
되거나 잠을 줄이는 것, 즉 좀 더 일찍 일어나거나 늦게 자는 것,
그리고 통근시간이나 근무 중 휴식시간을 활용하는 것 등을 의미
하는 것이다.

“우리가 경전 공부와 같은 것을 하기 위해 시간을 내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그런 시간을 마련하는
것은 쉽습니다.”라고 덕은 말한다.

“계획이 없을 때는 여가 시간이 나더라도 그 시간을 허비하기
쉽습니다.”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것들을 경계함

이는 세상이 여러분에게 일과 다른 책임들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지 않을 때에는 보통 다른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의 시간을



시간이 부족한가?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쉽지 않은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들을 의식적으로 부차적인 위치에 놓고 선택하는 삶의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우선으로 둘 때, 그분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 감옥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벽은 오히려 여러분이 행하라는 요청을 더 많이 받음에 따라 작아질 것입니다.”

헨리 비 아이머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현실생활을 위한 교육”, *앤서인*, 2002년 10월호, 18, 20, 21쪽.

채우도록 함으로써 여러분의 관심을 점령해버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라고 미스티는 말한다. 미스티는 MP3 플레이어에 예로 드는데, 그것은 어디를 가더라도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해주지만 동시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저는 거의 일년 전에 MP3 플레이어를 사용하는 것을 그만 두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집중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MP3를 듣고 있으면 생각하고 명상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딕은 TV에 대해 이야기한다. “TV 볼 시간이 있다면 경전을 읽을 시간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균형을 잡고 올바른 일을 제 시간에 해야 합니다.”

이들 청년 성인들에게는 불건전한 오락 프로그램을 보거나 부적절한 음악을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들이 영적인 것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적은 시간들을 오락에 써버리는 것이다.

혹은 다음과 같이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가 이야기한 이유에서이다. “세상의 것들이 밀려들어 올 때, 잘못된 것들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너무나 흔합니다 ... 사탄은 선한 사람들을 대적하여 사용할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선한 사람들이 세상의 관점에서 ‘괜찮은 것들’로 그들의 생활을 채우도록 만들어서 필수적인 것들을 위한 시간은 줄어들게 만듭니다.¹”

자신을 성결케 함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기 위하여, 딕, 케이티, 령, 미스티와 슈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레위기 20:7)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책임에 대해 배우고

있다. 이들은 성결하게 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1. 신앙으로

“그들이 내 안에서 성결하게 될 수 있도록 ... 나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는 그날에”(이더서 4:7)

신앙은 행동으로 이어지며, 이들 청년 성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그리스도와 같은 행동을 낳게 한다고 믿는다.

하루를 보내는 동안 딕은 가능한 자주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려 노력한다. “그분은 우리에게 성스러움의 모범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라고 그는 말한다.

그런 후 그는 그렇게 생활하려 노력한다.

신앙으로 인해 이 친구들은 경전을 공부하고 종교교육원에 참석하며 선교사들과 함께 일하고 성전에서 봉사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그들에게 간증을 나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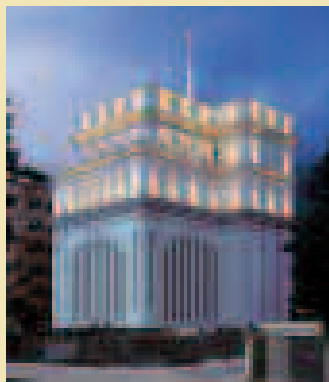
그들은 또한 주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이 바라는 것들을 희생할 것임을 나타낸다.

케이티가 말한다. “저의 생각, 그리고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에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더 잘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분을 믿고 그분에 대한 신앙을 가질 때 저는 그분을 더욱 닮아갈 수 있습니다.”

2. 연구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한복음 17:17)

“우리가 경전을 삶에 적용할 때 경전의 말씀은 우리가 삶에서 다루고 또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한 답을 줍니다.”라고 딕은 경전 공부에 대한





짱 덕 룡, 앵 케이티
카-라이와 유엔 령
상은 모든 일을 다
해낼 시간이
충분하지 않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한다

친구들은 모두 동의한다. 그리고 모두 매일 업무를 시작하기 전이나 잠자리에 들기 전 30분간, 혹은 통근시간에 경전 공부를 위한 시간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이야기 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전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가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며 우리의 본성마저도 바꿀 수 있다고 령은 이야기한다.²

“경전은 복음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줍니다. 성신을 느낄 수 있고 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해줍니다.”라고 령은 말한다.

3. 희생으로

“성결하게 됨은 그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라”(히라맨서 3:35)

“구주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이 바라는 것들을 희생하기를 요구하십니다.”라고 케이티가 말한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을 기꺼이 포기해야 합니다.” 미스티도 동의한다.

예를 들어, 령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수께 질문했던 누가복음의 젊은이를 그 예로 이야기한다. 그 젊은이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지만 예수님이 그의 모든 소유를 팔고 구주를 따르라고 제안했을 때 자신이 가진 부를 포기하지 못했다.(누가복음 18:18~23 참조)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자신에게 소중한 것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령이 설명한다.

“우리 모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부가 아니더라도 그분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말입니다.”

그들이 토론한 한 가지 예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죄를 기꺼이 버리려 한 라모나이 왕의 아버지이다.(엘마서 22:18 참조)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분을 따르려는 신앙이 있는지 알고자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라고 미스티가 말한다. “그분은 우리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 알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성결하게 되려면 우리의 의지와 바람들을 희생해야만 합니다.”라고 슈가 말한다.

4. 순종으로

“율법으로 다스려지는 것은 또한 율법으로 보전되고 그것으로 온전하게 되며, 성결하게 되느니라”(교리와 성약 88:34)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희생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행하고 자신이 맺은 성약에 따라 생활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행해졌을 때 그것은 우리를 성결하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덕이 말한다.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를 성결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좀 더 기꺼이 순종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차우 슈 와이와 첸
미스티 라이 밍은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내기 위해
기꺼이 세상적인
목표를 희생하는
것은 위대한 축복을
가져온다고 말한다.

것입니다.” 케이티가 말한다. “우리는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면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5. 속죄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히브리서 10:10)

“저에게 있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면전에 거하기에 합당하고 순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렙이 말한다. “이는 오직 속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미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느낌들을 이미 느끼셨습니다. 속죄에는 그가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위대한 권세가 있습니다.”(모로나이서 10:32~33참조)

케이티는 속죄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우리를 위해 “구주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딕은 그가 매일 회개하고 계명을 지킴으로써 주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도록 할 때 속죄의 영향을 느낀다고 말한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도록 우리가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예이다.(레위기 20:7~8 참조)

세상에 거하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이 청년 성인들은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명하셨기 때문에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시간을 내고 있다. “너희는 … 조직을 갖추며, 준비하며,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하도다, 너희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내 앞에서 너희 손과 너희 발을 깨끗이 하여 …”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하신 이유를 아는 것은 그렇게 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할 수 있게 하고, 나로 너희 아버지 곧 너희 하나님께 너희가 이 사악한 시대의 피에 대해서 깨끗함을 증거하게 하고”(교리와 성약 88:74~75)

“삶은 견잡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홍콩의 불야성 같은 밤 풍경을 내다보며 딕이 말한다. “우리가 생활에서 구주를 위한 시간을 낼 때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한 그분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

주

1. “중요한 것을 먼저 함”, 리야호나, 2001년 7월호, 7쪽.
2. 보이드 케이 패커, “두려워 말라”, 리야호나, 2004년 5월호, 77 쪽 참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세의 실재성을 가르쳐준다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의 필요사항에 맞는
성구와 내용을 가르친다.
교리에 대한 간증을
전한다. 여러분이 방문한
자매들에게 그들이 느끼고 배운 것을 함께
나누도록 권유한다.

우리는 전세에 대해 무엇을 배웠는가?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전세에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 이들이 거할 땅을
만들리라.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그들을
시험하여 주 그들의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무엇이든지 그들이 다 행하는지를
보리라.

“그리고 자기의 첫째 지체를 지키는
자들은 [즉 전세에서 순종한 자들은]
더하여질 것이요 … 자기의 둘째 지체를
지키는 자들은 [즉 현세에서 순종한
자들은] 그들의 머리 위에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더하여지리라’ [아브라함서
3:24~26]

“… 여러분은 필멸의 삶에서
개인적으로 부딪치게 될 상황에 대해
배우고 준비했습니다. … 유효한 시험이
되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전세에 대한

여러분의 기억이 지워질 것이지만
생활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한 지침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분에게
돌아갈 기회가 주어진 이 생에서 구원을
위한 아버지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불릴 것입니다. (“회복된 진리”,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78~79쪽)



조셉 비 워스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 모두 함께 참석했던 전세의 천국
회의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받아들이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 계획의 실행을 위해
그분을 택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인간의 영들을 구하기 위한 천국
전쟁에서 그분은 선한 영들을 이끌고 사탄
및 그의 추종자들과 맞서서 싸우셨습니다.
이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천국
전쟁에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편에
있었으며, 오늘날 현세에서도 그분의 편에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믿음과 행위”,
리아호나, 1997년 1월호, 일곱 번째 문단)

전세를 이해하는 것은 왜 필수적인가?

줄리 비 벡,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여성들은 창세 이전부터 받은 고유한
책임이 있습니다. … 우리는 천국 전쟁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영원한
가족의 일원이 될 잠재력을 지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딸임을 알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변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신 계명이 여전히
유효함을 알고 있습니다. … 우리에게
주님의 도움으로 자녀를 성공적으로
기르고 가르칠 수 있다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행복의 계획에서
필수적인 책임이며, 여성들은 이러한
역할을 온 마음을 다해 받아들이기 때
행복해집니다! (“후기 성도 여성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 굳건하고 흔들림 없이
섬”,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110쪽)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1895~1985):

“필멸의 생을 삶의 전부로 본다면,
그때에는 고통, 슬픔, 실패 그리고 짧은
삶이 재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삶을 전세의 과거와 죽음 이후의 영원한
미래까지 멀리 펼쳐지는 영원한 것으로
바라본다면, 그때에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올바른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더블류 김볼 [2006], 15쪽)

추가적인 연구를 위해 예레미야
1:4~5, 교리와 성약 138:55~56
참조한다. ■

“술이나 담배를 딱 한 번 시도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해로울까요?”

경 전은 우리가 선택의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반대되는 것, 즉 선과 악이 있어서 우리가 “이편이나 저편에 의해 이끌[려야]”(니파이후서 2:16) 한다고 가르칩니다. 자신의 선택의지가 실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때때로 잘못된 선택에 이끌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선과 악 모두를 경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고 그 다음 선을 택하는 것입니다.

술이나 담배를 한 번 해보는 것이 여러분을 해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해로운 것이며 그것을 취한다면, 영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한 한 번의 시도가 평생의 중독으로 이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딱 한 번만”이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요, 시도하지 마십시오. 단 한 번도 안됩니다! 다시는 하지 않을 거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술과 담배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제 친구 한 명은 한 번 술을 마셔보았습니다. 밖에 다시 나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녀는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모두들 그녀가 “딱 한 번” 술을 마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딱 한 번만 더”가 되었습니다. 비회원들은 우리 회원들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표준을 지키지 않는 모습은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실망하실지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카일라 더블류, 17세,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계명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그것들의 영향에 대해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분은 형제님을 참으로 사랑하시며 악마로부터 보호하시고자 합니다. 계명은 그분이 형제님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마련하신 하나의 방편입니다. 마약을 하지 않는 것 또한 계명이며, 그러니 항상 안전한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형제님이 옳지 않다고 알고 있는 것들을 시도해보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를 간구하십시오.

아세나카 브이, 18세, 피지 수바

이곳에 실린 대답들은 도움을 주고 문제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을 갖기 위함이며, 교회의 교리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지혜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며, 따라서 엄격한
주의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며, 죄란 단 한 번을
범했어도 죄입니다. 심각한 죄는 작은
유혹들, 예를 들어 호기심으로 술이나
담배를 시도하는 것과 같은 것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애나 엠, 20세, 멕시코 미초아칸

유혹을 물리치십시오.

의도적으로 유해한 물질을 섭취하는
것은 지혜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실험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유해한 물질을 섭취하는
것은,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심각한
중독으로 이어집니다. 지혜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질 많은
축복들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을
더럽히게 됩니다. 유혹을 물리치는 최선의
무기는 기도과 금식, 경전 공부입니다.

올렉 피, 16세, 우크라이나 크리미아

어려운 방법으로 배우지 마십시오.

교회의 지도자들은 “딱 한 번만”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니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들 스스로 어렵게 배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또한, 성전
추천서 접견을 할 때 신권 지도자가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지 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로렌 알, 15세, 미국 메릴랜드 주

정당화는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딱 한 번인데 뭐”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그 일을 행했다는 점에서 옳지
않은 말입니다. 한 번 하고 나면 다시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집니다. “딱 한 번인데 뭐”라고
정당화하는 것은 곧고 좁은 길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서고 나면 “딱 한 번 더하는 건데 뭐.
그리고 난 언제나 원할 때 끊을 수
있어.”라고 말할 것이므로 되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또
한 번 해야겠어.” 혹은 “내년 이제 희망이
없어.”라고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담 에이치, 16세,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다음 호 질문

“제게는 비회원인 친구들과 어떤 종교가 참된지에
대해 논쟁을 하는 교회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분쟁은 잘못된 것인 줄 압니다만, 친구들에게
제가 복음에 대해 느끼는 것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답변을 아래 주소 또는 이메일로

2008년 7월 15일까지 보내 주세요.

Liahona, Questions & Answers 7/08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이메일 혹은 우편에 다음 내용과 동의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와드(혹은 지부)

스테이크(혹은 지방부)

나는 답변과 사진을 인쇄하는 데 동의합니다.

성명

부모 서명(18세 미만인 경우)

단 한 번으로도 상처를 입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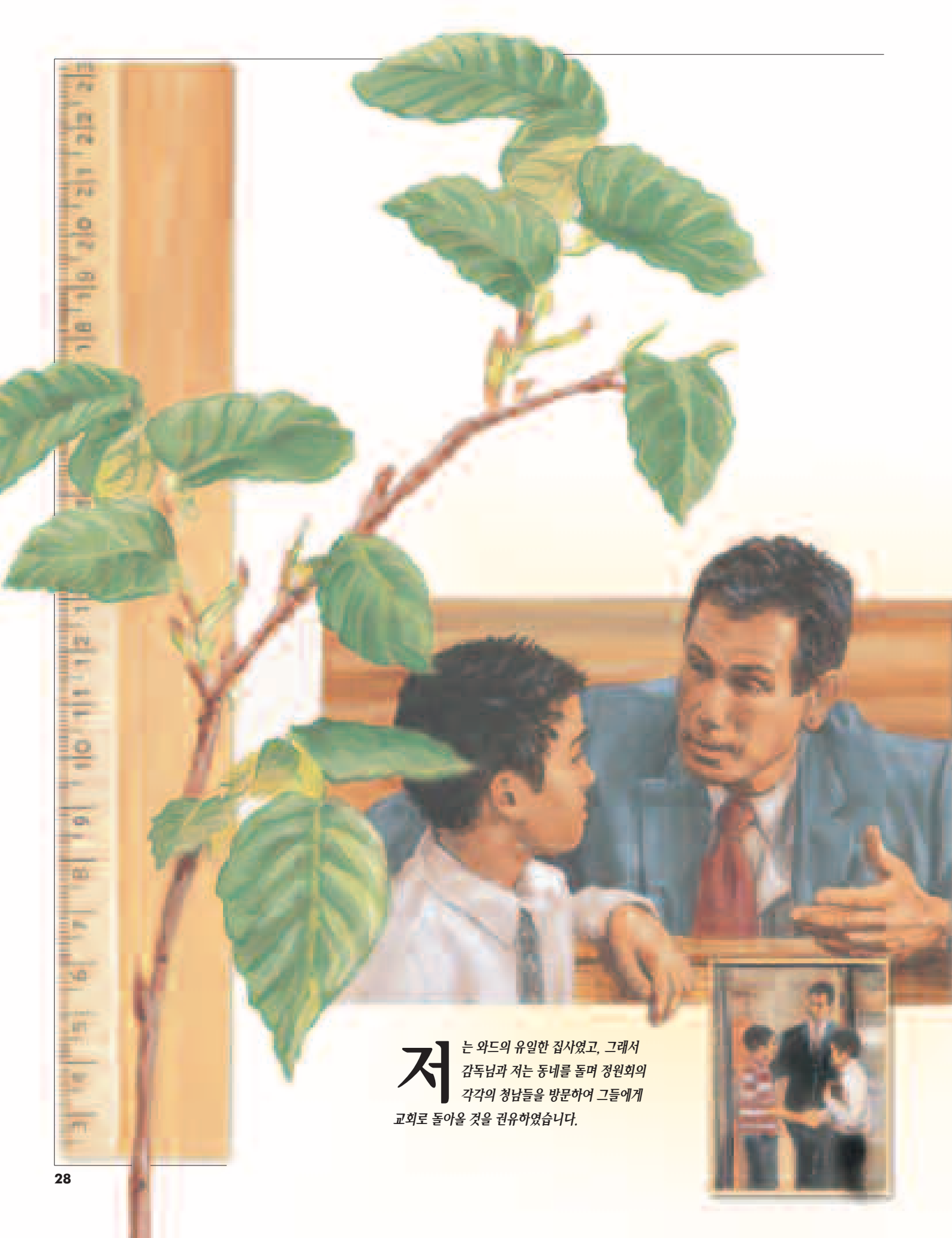
“수년 전, 제 아들 중
하나가 술이나
담배가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
시도해보는 것이 왜
좋은 생각이 아닌지
질문했습니다. 그는
지혜의 말씀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러한 것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지만, 스스로

알기 위해 그러한 것들을 시도해보는 것이
왜 안 되는지를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무언가를 시도해보고자 한다면
들판에 나가서 퇴비를 조금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며 물려했습니다.
‘어휴, 더러워요.’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다행이다.”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알기 위해서
한번 맛을 보는 것이 어떨겠니? 너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한 가지를

시도해 보겠다고 제안하고 있으니 다른
것들에도 똑같은 원리를 적용해 보는 것이
어떻겠니? ‘직접 시도해보는’는 것의
어리석음에 대해 그러한 예를 들으로써,
제 열여섯 살 난 아들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죄와 고통”,
리아호나, 1994년 4월호, 32쪽.



저는 와드의 유일한 집사였고, 그래서 감독님과 저는 동네를 돌며 정원회의 각각의 청남들을 방문하여 그들에게 교회로 돌아올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성장을 위한 부름

울리세스 소아레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

저는 브라질에서 네명의 아들을 가진
훌륭한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은 교회
회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교회에 들어왔고 저는 여덟 살이
되었을 때 침례와 확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열두 살이 되었을 때 감독님이 접견을
요청하셨습니다. 접견을 하면서 그분은 아론
신권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신권을
소유함에 있어 저의 책임이 무엇인지도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집사정원회 회장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정원회에서 활동 회원은 저
하나였습니다. 당시 저의 훌륭한 감독님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단순한 초대

어느 일요일 아침 신권 모임을 하려고 교회에

있을 때, 그분이 저를 돌아보며 질문했습니다.
“다른 소년들은 어디 있지? 네 정원회의 집사들
말이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 혼자예요. 제가 아는
한 제가 유일한 정원회 회원입니다.”

“네 정원회 회원들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지?” 그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라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다정하게 “내가 할 일을
말해주마.”라고 말했습니다.

그 모임이 끝나자마자 감독님은 저를 데리고
동네를 돌며 정원회 명단에 있는 각각의 청년들을
방문하여 그들에게 교회로 돌아올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 중 몇 명은 몇 차례의 방문이
있을 후 정말로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일부는
선교 사업을 나갔고 훌륭한 가족을 이루었으며
감독이 되고 스테이크 회장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감독님과 저의 그날의 단순한 방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작은 와드에서 특별한



감독님은 저에게 임무를
주었고 제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간증을 지니고
일하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 이해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열여섯 살쯤 되었을 때 감독님은 저를

주일학교 청소년반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겁이 나고 긴장되었습니다. 공과를 준비하면서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음 일요일, 저는 반원들에게 그들이 신앙을 가진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필요사항에 대해 주의를 기울였으며, 저는 그로 인해 평생 간직할 교훈을 배운 것을 진정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저는 사람들이 돌아오라는 권유를 받을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가서 그들에게 권유해야 합니다. 신권에 관한 경험이 없었던 저와 같은 소년일지라도 왕국을 성장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집사정원회 회장으로서의 그 경험은 저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독님은 아주 지혜로운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미래를 내다보았습니다. 제가 훈련이 필요한 청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임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의 훈련자가 되기로 결정하시고는, 저와 함께 다니면서 돕고 지원하기 위한 시간을 내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간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이해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훌륭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간증에 대한 교훈

제가 열여섯 살 쯤 되었을 때, 바로 그 감독님은 저를 임시 주일학교 청소년반 교사로 지명하셨습니다. 감독님이 그 부름을 주실 때, 저는 겁이 나고 긴장되었습니다. 제가 누구를 가르칠 만큼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반의 교사가 될 수 있지? 장님이 장님을 이끄는 셈이잖아.”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번은 공과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에 대해 설명해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물몬경에서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참되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에 대해 기도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내가 청소년들에게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라고 가르칠 수 있지? 나도 그렇게 안해봤는데.”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회원이 된 이후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대해 항상 마음에 따뜻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인지에 대한 걱정을 해 본적도 없습니다. 그러한 느낌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 기도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의 공과를 준비하면서 저는 복음이 참되다는 확신을 받기 위해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방에서 무릎을 꿇고 제 마음속에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라는 확신을 얻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단한 나타나심이나 천사의 방문 같은 것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응답이 어떻게 올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고 주님께 이 복음이 참된지 간구하였을 때 마음속에 매우 따뜻한 느낌, 즉 복음이 참되며 계속 그 안에 머무르라는 작은 소리가 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느낌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절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응답을 절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작은 소리였지만 매우 강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너무 행복해서 어떤 나쁜 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나쁜 말을 할 때에도, 저는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

다. 다음 일요일, 청소년 반원들 앞에 섰을 때, 저는 제가 가진 간증을 나누고 그들이 신앙을 가진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기도

에 응답하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에 관하여 조셉 스미스가 읽었던 바로 그 구절이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야고보서 1:6). 또한 사람이 기도할 때 믿지 않는 마음을 가진다면 응답 받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과 저의 작은 반의 반원들에게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 응답을 바라면서 간구해야만 주님께서 응답하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의 간증은 의로운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확신을 주었으며, 특히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표준을 지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특히 저처럼 학교에서 유일한 교회 회원인 경우 더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의 간증은 친구들이 옳지 않은 일을 하라고 압력을 줄 때에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경험 이후로 저는 그 간증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후 저는 훌륭한 감독님과 가족의 도움을 받으며 선교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봉사했고 귀환한 후 학교에서 학위를 땀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열여섯 살 때 했던 그 기도 덕분에 이루어졌습니다.

일생을 통한 성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항상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 간구해 보아야 했고, 그제서야 제 자신의 경험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선교 사업에도 도움을 주었는데, 제가 사람들에게 기도할 것을 권유할 때 저의 경험을 나누고 저 또한 그렇게 했다고 알려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간증했습니다.

교회에서 부름과 임무들을 통해 배우고 봉사하며 성장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커다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기회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고 또한 여러분이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물매를 던지는 사람은 던지는 손으로 물매의 양 끝을 쥐는데, 때에 따라 물매의 한쪽 끝은 손가락에 감고 반대쪽 끝은 엄지와 검지로 잡는다. 물매를 던지는 사람은 보통 머리 위로 물매를 돌리지 않고, (어깨 위 혹은 아래쪽에서) 한 번만 돌린 후 강하게 던지는 동작을 취하면서 엄지와 검지를 풀어 돌을 날려보낸다.

고대의 물매는 보통 양모

또는 아마 섬유를 길게 뿔아 만들고 가운데 주머니를 두어 돌을 넣을 수 있게 했다. 물매의 길이가 길수록 사정거리도 길었다. 가장 긴 물매로는 돌을 사속 100~160km로 약 250m 이상 날려보낼 수 있었다.

물매를 던지는 사람들은 둥글고 다소 무게가 있는 돌을 선호했는데 그런 돌이 직선으로 정확하게 날아가기 때문이었다. 물매에 사용되는 돌은 보통 지름이 5cm 정도였다. (골프 공 정도의 크기)

자신의 골리앗을 이김

다윗은 골리앗과 싸웠을 당시 아마도 열여섯 살이 채 못 되었을 것이며, 경전에서는 그가 "빛이 붉고"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붉은 머리색 혹은 불그레한 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즉 나이가 어렸음을 의미한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사무엘상 17:46)

농구골대, 10피트(3미터)
골리앗, 약 9피트(2.7미터)

다윗



사자와 곰이 다윗의 아버지의 양떼를 공격했을 때 다윗은 그 맹수들을 물리쳤고, 그것은 그에게 골리앗과 맞설 자신감을 주었다.

우

리 모두는 인생에서

자신의 골리앗, 즉

극복하기에 너무 커

보이는 고난과 도전, 유혹들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 고든 비

힅클리(1910~2008) 회장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유혹이 닥쳐오면 그

유혹을 거만하고 속임수를 일삼는 거인

“골리앗”이라 칭하고, 다윗이 가드 출신

블레셋인에게 행한 것처럼

행하십시오.”(“우리 생활에서 골리앗들을

물리침”, *리아호나*, 2002년 2월호, 5쪽)

사무엘상 17장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다윗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그는

어떻게 그 싸움을 준비했는가?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한 명의 청소년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 훌륭한 이야기를 공부하기 위한 보충

자료는 다음과 같다.

골리앗의 비늘

갑옷 (사무엘상17:5)은

무게가 “오천 세겔”, 즉

57~90kg 정도였다.

골리앗의 창 자루는

“베를 채” 같았으며

아마도 9kg 이상이었을

것이다; 창날은 “천 육백

세겔”, 즉 7~11kg였다.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에게 해 근방 지역에서 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골리앗은 매우 키가 크고 심지어 “거인들”로 불렸던 민족의 후손이었을 것이다.(신명기 2:10~11; 여호수아 11:22 참조)

골리앗의 낫 투구는 아마도 청동, 구리 혹은 철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것은 등과 목을 보호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단창에 연결되어 있었을 것이다.





치유의 영적인 요소

알렉산더 비 모리스 장로

1987년에서 2000년까지 칠십인으로 봉사함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경전상의 이야기들은 모든 종류의 질병을 치유하는 그분의 비견할 수 없는 권능에 대한 기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약의 복음서에는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것부터(요한복음 4:46~53참조) 대제사장의 종 딸고의

귀를 낮게 하신 데 이르기까지(누가복음 22:50~51; 요한복음 18:10 참조)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에 관한 스무 번 이상의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치유의 권능은 육체적인 질병을 지닌 자들을 고치는 것을 넘어 “백성 중의 모든 병”(마태복음 4:23; 강조 추가; 또한 모사이야서 3:5; 제3니파이 17:5~10 참조)을 포함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무한한 동정심으로 육체적인 병뿐 아니라 정신적 또는 정서적 질병이 있는 자들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요소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강력하고 그 영역과 범위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어서, 죄에 의한 대가를 치르는 것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나아가사 온갖 고통과 고난을 당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울지 온전히 아시며(앨마서 7:11~12 참조) 아담의 가족에 속한 모든 자들의 헤아릴 수 없는 죄의 짐을 지셔서(니파이후서 9:21 참조), 그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그들의 고난의 이유를 불문하고- 치유의 권능을 미치고 계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이사야서



치유의 성스러운 은사는 축복을 받는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기에 그의 필요 사항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에 의해, 각기 다른 방법으로, 개인의 필요에 맞게 주어집니다.

베데스다의 연못, 칼 하인리히 블로호, 브리검 영 대학 미술관 제공.

축

복을 받는
사람의 신앙은
치유를 위한

중요한 필요조건입니다.
신앙이 없다면 치유의
기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53:5)

신권의 역할

구주께서는 그의 성스러운 권능으로 모든 사람을 고치실 수 있지만, 성 멜기세덱 신권의 권능을 행사하는 필멸의 존재인 신권 소유자들은 그분의 뜻에 따르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축복한 사람들을 치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그를 괴롭히던 알 수 없는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시도록 “세 번 주께 간구하였습니다.”(고린도후서 12:7~8) 그러나 주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시면서 그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린도후서 12:9). 바울은 시련과 고난이 필요한 것이며 삶의 피할 수 없는 요소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1895~1985)
회장은 신권 소유자들의
치유의 권능이 제한되는
것에 담긴 지혜를
이해했습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신권의
권능은 제한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현명하게
우리 각자에게 어떤
제한을 두셨습니다. ...
신권을 통해 아픈 모든
사람들을 고칠 수 없다
해도 저는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어쩌면 저는 죽어야 할
사람들을 고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좌절시킬까
두렵습니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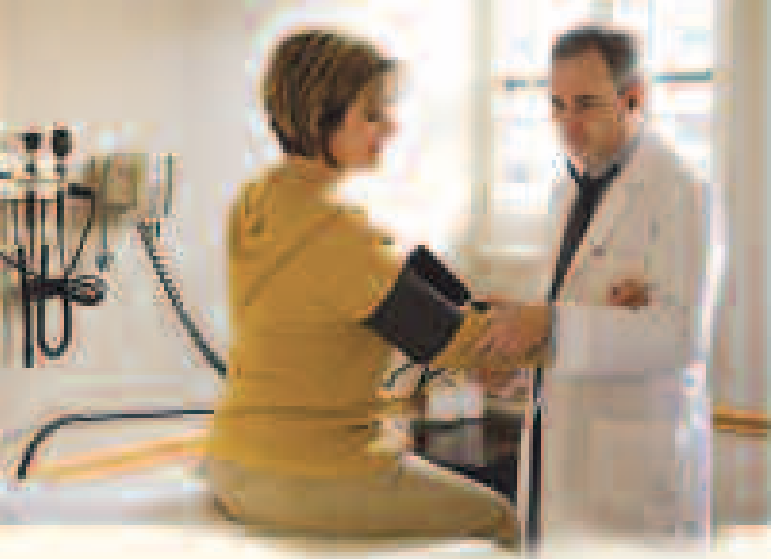
수년 전 제가 젊고 경험이 없는 지부 회장이었을 때, 지부의 한 회원이 심하게 앓고 있는 자기 아내를 축복하는 데 참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분명 제가 그의 아내가 질병에서 완치되도록 축복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러길 바랐습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힘든 상황에 처해 있던 우리 지부에서 없어서는 안 될 회원들이었습니다.

그 형제는 절차에 따라 아내의 머리에 축복된 기름을 부었고 제가 그 기름부음을 인봉했습니다.(야고보서 5:14 참조) 놀랍게도 저는 의도하지 않았던 말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자매는 “죽기로 정해[져]”(교리와 성약 42:48)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에서 회복되는 대신 평화롭게 우리를 떠나 주님의 사랑의 팔에 안기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그 자매는 세상을 떠났고, 저는 더 슬프지만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그녀의 장례식을 감리했습니다. 저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병자를 축복할 때,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해야 할 문장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누가복음 22:42)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유의 성스러운 은사는 축복을 받는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기에 그의 필요 사항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 의해, 각기 다른 방법으로, 개인의 필요에 맞게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치유의 권능은 비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신체의 일부가 고쳐지고 지친 마음에서 고난의 짐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영구적인 위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짐을 짊어진 사람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평안, 휴식, 그리고 고통의 경감은 의학적인 관점의 치유가 아니라 그들의 짐을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추가적인 힘과 이해, 인내, 그리고 동정심의 은사로 옵니다. 그러면 이들은, 엘마와 그의 형제들처럼, “쉽게 그들의 짐을 지고 주의 모든 뜻에 즐거이 인내를 가지고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모사이야서 24:15)





의술의 역할

우리는 질병을 앓는 모든 사람들이 그 원인에 상관없이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 어쩌면 영원히, 오직 신권 축복만을 필요로 한다고 믿어서는 안됩니다. 저는 신권 축복을 매우 옹호하고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많은 개인적 경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최종적이고 온전한 치유를 위해 필요한 소중한 “길르앗의 유향”(예레미야 8:22)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다루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귀중한 도움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지식을 주셨음을 압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몇몇 아픈 사람들은 신권 축복을 받고 그들의 짐이 가벼워 지도록 열심히 기도한 후 그들이 질병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게 된다면 자신이 가진 부족한 신앙에 대해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그들의 신앙이 약물을 대신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처방된 약물을 복용하는 것을 중단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생각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실천하는 것과 그와 동시에 신앙을 행사하는 것은 서로 대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신앙을 행사하는 것이 경험있는 건강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건강 전문가 중에서, 그들의 학술적 훈련이나 분야가 주로 의학적인 것이었던지 혹은 심리학적 치료에 관한 것이었던지에 상관없이, 영성이 그들이 지닌 치유를 위한 자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 1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영성과 치유에 관한 과목이 있는 의과대학은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였지만, 현재는 반 이상이 그렇습니다. 특히 종교적으로 독실한 환자들에게서, 예를 들자면 우울증의 심리치료요법에 대한 영적인 접근이 순전히 비 종교적인 접근방법 못지않게 효과적이라는 증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신체적 혹은, 정신적 질병을 가진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 영적인 것에 기반을 둔 접근법과 예방 및 치료법을 사용하는 내과 의사들과 심리치료사들이 현재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역할

축복을 받는 사람의 신앙은 치유를 위한 중요한 필요조건입니다.(니파이후서 26:13; 모사이야서 8:18; 교리와 성약 35:9 참조) 신앙, 즉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히브리서 11:1)는 개인적인 의로움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영의 은사입니다.(고린도전서 12:9; 교리와 성약 46:19~20 참조) 신앙이 없다면 치유의 기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는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신앙이 없을진대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으심이라. 그리하여 그는 그들이 신앙을 갖기까지 자기를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이더서 12:12)

영적인 부분을 포함하는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본성과 그분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필멸의 인간은 썩게 될 육신과 영원한 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들이 합하여 산 영혼을 이룬다고 경전이 가르치고 있으며 이를 현대의 선지자들이 확인해 줍니다. 아버지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은 모든 필멸의 인간들이 죽음으로 인해 영과 육의 분리를 겪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에 정하신 때에 그



모든 사람에게 대한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하심은 모든 종류의 병으로 고통 받는 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가져다줍니다. 그분의 사랑은 언제나 실재하며 결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영육이 다시 하나가 될 것이며 “만인은 썩지 않을 것과 불멸의 것이 되나니, 그들은 산 영혼이라, 완전한 지식을 가지느니라.”(니파이후서 9:13; 또한 앨마서 11: 42~45 참조)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우리의 구주에 대한 신앙과 함께,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그분과 같이 되려고 노력하는 성스러운 기회를 가졌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 영원하고 변치 않음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생활에 평안을 가져옵니다. 질병의 의학적, 심리적, 또는 사회적 영향이-그것이 육체적인 것 혹은 정신적인 것, 어디에 기인하던지간에-“육체의 가시”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평안은 지속됩니다.

고난의 역할

저는 우리의 영적인 힘이 영혼이 시험을 받는 정도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추구하거나 시련을 영광스러워 해서는 안됩니다. 고난 그 자체에 내재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은 영혼을 강화시키고 정결하게 하는 만큼 그것을 상처 입히고 아프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영혼들은

고난에 대응하여 더 강해지지만, 다른 영혼들은 구부러지고 부러집니다. 작가 앤 모로우 린드버그는 다음과 같이 지혜로운 말을 남겼습니다. “만일 고난이 그 자체로 가르침을 줄 수 있다면 온 세상이 지혜로울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겪기 때문이다.”² 만일 “[그리스도의] ... 고난에 참여”(빌립보서 3:10)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알고 닮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 대가는 실로 고난을 수반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고난에 동정, 연민, 인내, 겸손, 그리고 자신의 뜻을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더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대한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하심은 모든 종류의 병으로 고통 받는 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가져다줍니다. 그분의 사랑은 바울의 다음과 같은 간증처럼, 언제나 실재하며 결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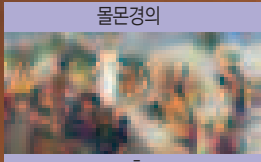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로마서 8:35, 38~39)

무한한 사랑과 연민을 지닌 예수님은 우리의 곤경과 슬픔을 아십니다. 그분은 “그들이 어떤 땅에 있든지 모든 백성을 생각하시며, 참으로 그는 자기 백성을 헤아리시며, 그의 아버지의 심정은 온 땅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앨마서 26:37)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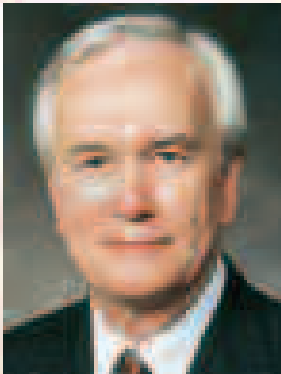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더블류 김볼(2006), 16쪽.
2. “Lindbergh Nightmare,” *Time*, 1973년 2월 5일, 35쪽.

물몬경의



교훈

마음의 변화를 경험함



여러분과 제가 커다란
마음의 변화와 영적인
거듭남의 수혜자가 되고,
그리하여 평안과 사랑,
진정한 기쁨과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약속된 축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키스 케이 힐비그 장로
칠십인 정원회

몇년 전 동유럽에서 저는 한 젊은 장로가 지역 대회 중에 동료 선교사들 앞에 서서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준 경험을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와 그의 동반자는 이반(가명)이라는 중년 남자를 만나서 그에게 토론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구도자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으며, 그의 낡은 옷과 덥수룩한 수염, 그리고 주저하는 듯한 태도를 통해 그것이 보여졌습니다. 삶은 그에게 힘겨웠으며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이반은 극복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회복된 복음에 부합하지 않는 습관들을 버려야 했습니다. 새로운 원리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반은 배우기를 원했으며 침례와 확인을 받기 위해 부지런히 준비했습니다. 그의 옷은 여전히 낡았고 그의 수염은 덥수룩했지만, 그는 첫 걸음을 내딛은 것입니다. 이반의 침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선교사는 이동을 갔습니다. 그는 다시 이반을 만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엘마의 개종, 제리 앨콧 : 브리튼 미술관 소장

엘 마 이세는
하나님의 적에서
새로운 피조물 즉
개종하여 왕국을 건설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6개월 후 선교부 회장은 그 장로를 다시 이전의 지부로 이동시켰습니다. 놀랐지만 돌아가기를 원했던 이 장로는 새 동반자와 함께 지부로 돌아온 뒤 첫 번째 일요일 성찬식에 아침 일찍 참석했습니다. 회원들은 그 장로가 다시 그들에게 돌아온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활짝 웃으며 그에게 다가와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장로는 그 작은 지부의 회원을 거의 다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6개월 전 자신과 동반자가 가르치고 침례를 주었던 그 사람의 얼굴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망과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이반이 해로운 생활습관으로 돌아간 것일까? 침례 성약을 지키지 못한 것일까? 회개함으로써 약속 받았던 축복들을 잃어버린 것일까?

두려움과 온갖 생각에 잠긴 이 장로는 한 낯선

남자가 그를 껴안으려고 그에게 성큼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깨끗하게 면도를 한 그 남자는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의 모습에서 분명 선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흰 셔츠와 정성껏 맨 넥타이를 한 이 사람은 그 안식일 아침에 작은 지부의 회원들을 위해 성찬을 준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입을 열고 나서야 장로는 그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가르치고 침례를 주었던 과거의 이반과는 다른 새로운 이반이었습니다! 그 장로는 그의 친구에게서 신앙과 회개와 용서의 기적이 실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속죄의 실현을 보았습니다.

그 선교사는 지역대회에 참석한 동료들에게 이반이 그가 그 지부를 떠나있었던 몇 개월동안 모든 면에서 변화되고 성장했다고



브리검 영(1801~1877)
회장은 “새로운
탄생”이란 진리의 영과
하나님께 온전하고도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나타낸다고
가르쳤다.

이야기했습니다. 이반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것은 그 안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침례를 받고 개종의 과정을 지속하기에 충분한 “마음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앨마서 5:26) 그는 더 높은 신권과 성전의식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반은 참으로 “거듭난” 것입니다.(앨마서 7:14)

말씀을 마치면서 그 선교사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나는 얼마만큼의 ‘마음의 변화’를 경험했는가?” 그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점검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거듭났는가?’ 이 두 가지 의미심장한 질문들은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물어보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 후로 수년 동안 저는 그 젊은 선교사의 말씀과 이반의 행동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곤 했습니다. 저는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우리 마음의 “크나큰 변화”(앨마서 5:12)와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나는]”(앨마서 5:14) 것의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저의 결론은 그것들이 주님의 교리에 있어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며 지상생활에서 단지 한 번만 겪게되는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개종의 과정과 개인적인 단련에 있어 그 깊이를 더하기 위해 마련된 계속되는 기회입니다. 이들은 영생을 위해 우리를 온전히 준비시켜 줍니다.

영적인 거듭남이라는 도전

거듭나고 마음의 크나큰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들 모두가 직면해야 하는 도전입니다. 일부 기독교 단체들은 단지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인정함으로써 이전 혹은 이후의 개인적인 행위와는 상관없이 거듭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한 번 표현하는 것으로 그의 역할에 대하여 단순히 인정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면전으로 돌아가는데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입장은 그 의도가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신약전서는 거듭남의 개념에 대한 수많은 기록을 제시합니다만, 번역된 바와 같이 정확히 그것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항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구주와(요한복음 3:5~7 참조) 침례 요한(마태복음 3:11 참조), 바울(로마서 6:2~6; 고린도후서 5:17; 갈라디아서 4:29; 에베소서 4:24 참조)은 그 원리를 선포했지만 그 의미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 몰몬경은 마음의 크나큰 변화를 경험하고 거듭나는 과정을 더 잘 이해하는데 훌륭한 자료가 됩니다. 몰몬경의 선지자들은 그 과정에 대해 더 온전한 교리적 선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두 과정 모두 앨마 이세에 의해 더 깊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는 교회의 회원들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나의 교회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너희는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났느냐? 너희는 너희의 얼굴에 그의 형상을 지녀 보았느냐? 너희는 너희의 마음에 이 크나큰 변화를 경험하였느냐?”(앨마서 5:14)

우리는 표준 경전을 통해 침수로써의 침례가 우리를 교회의 회원이 되도록 하지만 그 의식만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영적인 거듭남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침례 후에 확인을 받으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신을 동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에만, 그리하여 실제로 성신을 받았을 때에만, 우리는 성결하게 되고 따라서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앨마의 통찰력 있는 질문들은 우리들 각자에게 일생을 통해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브리검 영(1801~1877) 회장은 다음과 같이 “새로운 탄생”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영의 탄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만의 독립적인 조직체와 영의 세계, 그리고 이 조직체에 적용되는 원리들과 권능들에 대해 더 온전히 이해하게 된다면, 사람은 참으로 진리의 영과 하나님께 온전하고도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영으로 둘러싸이게 되어, 그것이 새로운 탄생이라고 불려지기에 적당하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¹

베냐민 왕은 그의 백성들에게 한 감동적인 연설에서 어떻게 복음의 원리대로 생활해야 하는지에 대해 권고했습니다. (모사이아서 2~4장 참조) 그런 후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말을



브루스 알 맥쿠키 장로는
“실제로 거듭난 교회의
회원들은 단순히 교회에
들어옴으로써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
사랑으로, 그리고 세상을
이김으로 그들의 위치를
얻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믿는지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그들의 대답은 강한 영향력을 지닌 모범을 제시하여 줍니다. “이에 그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소리쳐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우리는 왕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믿나이다. 또한 우리는 전능하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것의 확실함과 참됨을 아노니,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곧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변화를 이루셨으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으며,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자 하나이다.”(모사이야서 5:2)

그들은 또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우리 하나님과 성약을 맺어 우리의 남은 평생을 두고 그의 뜻을 행하며, 그가 우리에게 명하실 모든 일에 있어 그의 계명에 순종 ... 하려 하나이다.”(모사이야서 5:5; 강조 추가)

그러자 베냐민 왕은 그들에게 무엇이 일어났는지 또 그 결과는 어떤 것인지를, 거듭남에 대한 아주 훌륭한 정의와 함께 설명해 줍니다.

“너희는 내가 바라던 말을 하였도다. 그리고 너희가 맺은 성약은 의로운 성약이니라.

“이에 이제 너희가 맺은 성약으로 인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자녀라, 그의 아들과 그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는 보라, 오늘날 그가 영적으로 너희를 낳으셨음이라. 이는 너희 말에 너희 마음이 주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통하여 변화되었다 함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에게서 났고 그의 아들과 딸이 되었느니라.”(모사이야서 5:6~7)

베냐민 왕을 따르는 백성들은 분명 그러한 크나큰 마음의 변화를 경험했으며 그리하여 더 이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고, 나아가 그들은 분명 영적으로 낳게 혹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거듭나는 것이 우리의 과거의 죄에 대한 기억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양심의 평안을 주고 범법의 고통을 덜어 줄 것임을 기억하십시오.(모사이야서 27:29; 엘마서 36:19 참조)

거듭남의 축복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쿠키(1915~1985) 장로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실제로 거듭난

교회의 회원들은 축복받고 사랑 받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교회에 들어옴으로써가 아니라 믿음으로(요한1서 5:1), 의로(요한1서 2:29), 사랑으로(요한1서 4:7), 그리고 세상을 이김(요한1서 5:4)으로 그들의 위치를 얻었습니다.”²

엘마 이세는 하나님의 적에서 새로운 피조물 즉 개종하여 왕국을 건설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는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주께 구속함을 받았음이라. 보소서 내가 영으로 났나이다.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든 인류, 참으로 남자와 여자,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반드시 거듭나야 함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곧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 속되고 타락된 상태에서 의로움의 상태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아

그의 아들과 딸이 되어야 하나니,

“또 이같이 하여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이를 행하지 않는 한,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모사이야서 27:24~26)

만약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고 마음의 변화를 겪어야 한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태어났느냐 혹은 후에 청소년기나 성년기에 개종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개종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어느 시점에선가 그러한 마음의 변화와 영적인 거듭남을 경험해야 합니다. 거듭남과 마음의 변화를 겪는 과정은 포괄적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따라서 모든 개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경전은 바울이나(사도행전 9:1~20 참조) 엘마 이세처럼(모사이야서 27:8~37참조) 놀라운 방법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성경과 물문경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일시적인 사건이라기 보다는 개인적이고 점차적인 과정이었습니다.

맥쿠키 장로님은 브리검 영 대학교 제1 스테이크 대회에서 다음과 같은 위안과 격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개종 [영적인 거듭남과 그에 동반되는 죄사함은



베냐민 왕은 우리의
“마음이 주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통하여 변화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낡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걸음, 한 단계, 한 차원씩, 낮은 상태에서 더 높은 상태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온전히 의로움의 대업을 향하게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것은 한 개인이 오늘 하나의 죄를 극복하고 내일 또 다른 죄를 극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한 부분을 지금 온전히 하고, 그 다음 또 다른 부분을 온전케 합니다. 그리고 개종의 과정은 완성될 때까지, 문자 그대로, 물몬경에 나오는 것처럼, 욕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가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³

우리의 영적인 거듭남이 갑자기 일어나든, 보다 평범하게 점진적으로 일어나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다를지라도 결과는 비슷할 것입니다. 개종의 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각 개인에게, 커다란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기쁨과 사랑의 감정으로 나타나게 되며, 그 감정들은 모두 이전의 불순종으로 인한

고통(앨마서 36:20~21참조)을 없애줄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그분의 아들의 속죄는 얼마나 완전하니까!

이러한 참된 교리에 충실함으로써, 동유럽의 그 선교사와 그의 구도자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커다란 마음의 변화와 영적인 거듭남의 수혜자가 되고, 그리하여 평안과 사랑, 진정한 기쁨과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약속된 축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주

1. *Deseret News*, 1860년 5월 2일, 68쪽.
2. *물몬교리*, 2판(1966), 101쪽; 또한 조셉 스미스 역 요한1서 3:9 참조.
3. *개종할 자이다* 브리검 영 대학교 올해의 말씀(1968년 2월 11일), 12쪽

내가 교회에 관해 가장 좋아하는 것

이사벨 알퍼트

최 근에 나와 남편은 몇몇 친구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

대화의 내용이 종교쪽으로 흘렀고, 교회의 저활동 회원인 한 친구가 교회가 참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설명을 하면서 그는 단호하고 적대적이며 분노에 가득차게 되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앉아서 그냥 듣기만 했다. 처음에는 울고싶은 심정이었지만 이후에는 나도 화가 나서 그의 말을 반박하고 싶었다. 그러나 고요하고 작은 음성이 내게 조용히 있으라고 말했다.

우리가 저녁식사를 끝내고 계산을 할 때까지도 친구의 긴 비난의 말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마치 나의 반박을 기다리기라도 하는

듯 잠시 멈추었다. 나는 잠시 동안 자리에 앉아 소리 없이 기도를 드렸다. 그런 다음 부드러운 목소리로 침착하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일요일에 교회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성찬식이야!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 나는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다르게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곤 해.”

그리고 나서 나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나는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축복을 주고자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 생각하고 또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축복을 줄 더 많은 사람들을 찾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 매주 성찬식 동안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내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이러한 시간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 감사해.”

우리의 친구는 나를 바라보며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식당을 나와 차를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나는 친구에게 내 집 책장에 있던 삶에 도움을 주는 모든 책들을 기억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교회에 가입한 이후로는 한 번도 그런 삶에 도움을 주는 책들을 읽지 않았다고 이야기 했다. 내가 해답을 얻는 유일한 책은 물문경이라고 말했다.

며칠 후 그는 전화를 걸어 내게 사과했다.

모로나이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고한다.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나 는 화가 난 저 활동 친구에게 내가 일요일에 교회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성찬을 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너희의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으면”
(모로나이서 10:32). 내가 그 권고를
따르려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나의 사랑이 커졌다.
나의 적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

월급날까지 남은 한 주

줄리 시 도날슨

남편과 나는 어린 두
자녀들을 데리고 대학교의 큰
식당에서 빈 탁자를 어렵게
찾았다. 집에서 만든 샌드위치를 꺼내며
우리는 우리의 열악한 재정 상태에 대해
토론했다.

돈이 하나도 없었고 다음
월급날까지는 아직 일주일만 남아
있었다. 우리 모두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는 않았다. 우리는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었지만 만약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멈출 수가
있을까? 우리는 십일조를 충실히 내고
있었으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다.

우리가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있을 때
나는 몇 개의 탁자 건너편에 우리를 보며
웃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우리의 시끄럽고 활동적인 아이들 때문에
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가 우리 쪽을 향해
걸어오기 전까지는 그 남자의 시선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접혀진 종이 한
장을 탁자에 올려 놓으며 그는 남편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고는 웃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양손 모두 바쁜 것

같군요.”

그리고는 그는 걸어서 빠르게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종이를
펼쳤고 그 종이에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행운을 빕니다!
당신들은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
것 같군요.” 그 종이에에는 우리가
다음 한 주간 그리고 며칠을 더
생활하기에 충분한 돈이 끼워져
있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며 십일조를 넘으로써
오는 축복이라는 영의 평화로운 확신을
느꼈다. 나는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작은 가족을 상세히 알고 계시며
그분이 우리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낯선 사람은
우리 쪽을
향해 걸어와
접혀진 종이 한 장을
탁자에 올려 놓으며
남편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나는 그 메모를
보관해 두었고 지난 몇
년 동안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다. 나는
그 관대한 낯선 사람이
그의 행동이 가져올
영향력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 이 경험은 우리를 더욱더 큰
순종, 신앙, 그리고 감사로 이끌어주는
전환점이 되었다.

영적인 속삭임과 기꺼이 행하고자
했던 관대한 낯선 사람, 그리고
효과적이었던 메모가 나의 가족을
영원히 축복해 주었다. ■

파 비오가 인도에 놓여
있던 책에 다가갔을 때
그는 금색 글씨를
알아보았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이었다.

어디서 또 다른 몰몬경을 찾을 수 있을까?

커티스 클라인만

도 반자와 나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길고
성공적이지 못했던 가가호호를
막 끝냈다. 우리가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멍하게 자기
연민에 빠져 들기 시작했다. 나는 그
지역에서 3개월 동안 봉사 하면서 어떤
성과도 올리지 못했다. 나는 주님을
실망시켰다고 느꼈다.

바로 그때 나는 멀리서 한 남자가
자전거를 타고 우리 쪽으로 급히 오는 걸
발견했다. 그는 소리를 치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화가 난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우리는
다가오고 있는 버스를 향해 빠르게 걷기
시작했다. 날은 어두워지고 있었고
우리가 있던 곳은 위험한 지역이었다. 그
공포스런 남자가 우리에게 오기 전에
버스를 타길 바랐다.

“당신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라고 그
남자가 소리쳤다. 그가 오기 바로 전에
버스가 도착했고 우리는 서둘러 버스에
올라탔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 남자의
질문을 들었다. “조셉 스미스가 금판을
번역한 후에 금판은 어떻게 되었나요?”
나는 매우 놀랐다. 나는 출발하는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었다. 대신 나는
“당신은 어디에 살지요?”라고 소리쳤고
급하게 그의 주소를 받아 적었다.

다음날 우리는 그 남자의 집에
들렀다. 그의 이름은 파비오였다. 그는
한 달 전에 그의 친구가 몰몬경 한 권을
그에게 빌려주었다고 말했다.

“나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의
생애에 관한 또 다른 성약이 있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라고
파비오는 말했다. “나는 오직 성경과
동방에서 행한 그리스도의 성역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어요. 아무도
나에게 그리스도가
미대륙에 오셨다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나는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거라는
사실에 흥분되었어요.”

몇 주 후에 파비오는 그 책을
돌려주어야 했다. “또 다른 한 권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몰랐어요.”라고
그는 말했다. “무엇보다도 그 책이
진실인지 알고 싶었어요.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나는 ‘아버지시여, 몰몬경이
참되다면 그것을 계속 공부할 수 있게 또
한 권의 몰몬경을 제 손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고 말했어요.”

어느 날 파비오는 기차역에 있었다.
그는 파란 책처럼 생긴 무언가가 인도에
놓여 있는 것을 얼핏 보았다. 다가갔을
때 그는 금색 글씨를 알아보았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이었다.

그가 몰몬경을 발견하고 몇주 후에,
파비오는 버스 정류장에서 우리를 발견한
것이였다. 그때 그는 이미 그 책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후 몇 주
동안 우리는 파비오에게 복음의 기본
원리들을 가르쳤고 몰몬경을 계속 읽도록

격려했다. 그에게 새로운 복음 원리에 따라 생활하는 것에 대한 결심을 물을 때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두려워요”라고 대답하곤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침례의 물가로 들어갔다. 이제 나는 힘든 시간을 겪을

때마다 자기연민에 빠지는 것 대신에 파비오를 기억한다. -상심한 두 선교사에게 던진 그의 질문과 응답을 받은 후에 주님께 한 그의 약속을 말이다. ■

배운 것을 기억했다는 것을 알고는 감동했다. 그들은 겨우 여섯 살 또는 일곱 살이었지만 그들은 기도의 힘에 대한 신앙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어린 동생을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오후 내내 그들의 신앙에 대해 생각했다. 그때, 한 가지 질문이 마음속에 떠올랐다. 내가 언제 평온함을 느끼기 시작했지? 병원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계산해 본 후, 내가 느꼈던 평온함이 바네사와 바스코가 기도한 바로 그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사랑스런 목소리를 들으시고, 내 딸의 건강을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평안으로 나를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안다. 그날 나의 자녀들로부터 배운 것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주사 돌아보아주시[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다. (“약한 자여 겸손하라,” 찬송가 85장) ■

내 자녀들의 기도

버지니아 아우구스타 데 파두아 리마 페레이라

포 르투갈 비제우에 있는 교회에서 전화를 받으면서 나는 누가 전화를 한 것일까 하며 궁금해 했다. 전화에서 여덟 살 된 나의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는 놀랐다.

“엄마, 비비아나가 차에 치였어요.”라고 그 아이는 말했다. “살아있지만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어요! 병원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나는 거의 실신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행스럽게도, 근처에 나의 두 여동생이 살고 있었다. 그 중 한 명이 나와 함께 병원으로 갔고 또 다른 한 명은 걱정하고 있을 나의 다른 세 자녀들을 돌보고 보살피기 위해 집으로 갔다.

커다란 비통에 빠져 있는 동안 나는 기도하고 싶었지만 그저 흐느낄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병원으로 가는 중에 나는 갑자기 평화와 확신에 찬 느낌에 압도되었다.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느꼈다.

동생은 그러한 변화를 알아채고는 “괜찮아?”라고 물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의심스러워 하면서, 그녀는 “정말? 괜찮아?”라고 또다시 물었다.

“응.” 나는 대답했다. 그리고는 병원에 가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네 살 된 딸이 의식이 있으며 단지 가벼운 상처만 입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그 아이를 안심시킨 후에 나는 내가 느꼈던 그 평화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병원에서 하루를 지낸 후에 비비아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아이들과 집에 머물렀던 여동생은 “어제, 앰불런스가 떠난 후에 바네사와 바스코는 집으로 가서 함께 기도를 했어.”라고 말했다.

나는 온갖 두려움을 겪으면서도 나의 자녀들이 집에서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온 갖 두려움을 겪으면서도 나의 자녀들은 집에서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배운 것을 기억했다.



알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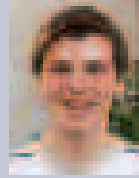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경전 구절

“진실로 이같이 주가
이르노라. 이렇게 될
것이니, 자기 죄를 버리고 내게로 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영혼은 나의 얼굴을 보며, 내가 존재함을
알게 될 것이요”(교리와 성약 93:1)

이 구절은 구주를 보기 위해 여러분이
해야 하는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저는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삶에서 그러한 것들을 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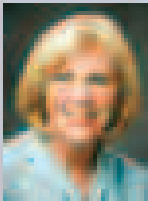
올레 아이, 16세, 노르웨이 부스케루주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경전 구절과 그 이유를 이야기
해 주세요. 다음의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liahona@ldschurch.org. 제목란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경전 구절”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말씀 조언

여러분이 교회에서 말씀 부락을
받았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준비하십시오.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약속 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준비 되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38:30) 말씀을 준비하고 정리하면서
어떻게 복음의 주제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여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좀
더 가까이 이끌었는지에 관한 긍정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의로움을 위한 지도자들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은 여러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 역사상

가장 훌륭하고 [가장 강한] 젊은이들의
세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장 큰
어려움과 기회가 있는 지금 지상에 오도록
준비되고 예비되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주께서 여러분이 의로움을 위한 지도자가
되고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범사에’ (모사이야서 18:9) 증인으로
서기를 기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진실로
여러분은 ‘미래의 밝게 빛나는 희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레인 에스 돌튼, 본부 청년 회장단 제1보좌, “여러분의
얼굴에 나타납니다.”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109쪽.



숫자

2006년에 인쇄된 몰몬경의 수: 3,500,000

볼리비아의 교회

1964년 11월, 안데스 선교부로
부름을 받은 선교사들이 볼리비아에
도착했다. 그들은 그해 12월 첫
개종자에게 침례를 주고 확인했다.

교회의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은 첫 번째 볼리비아인은 1967년에
부름받은 데시데리오 아르세 카노였다.
그는 자기 나라에서 봉사하기 위해
아르헨티나에서 가수로서의 직업을
포기했다. 나중에 그는 스테이크 회장과
선교부 회장이 되었다.

볼리비아의 교회 회원 수는 지난 10
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회원수	153,674
스테이크 및 지방부	34
선교부	3
성전	1
가족 역사 센터	31

친구들



첫 번째 시현

디이터 에프 우흐토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어린 시절 독일에서 성장할 때 저는 여러 다른 지역과 환경에서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초라한 뒷방, 멋진 별장, 그리고 매우 실용적인 현대식 예배당 등, 이 모든 건물에는 한 가지 중요한 공통 요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또한 지부나 와드 가족들이 모일 때 구주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쓰비카우에 있는 예배당에는 낡은 풍금이 있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한 청년은 풍금이 제대로 소리를 내도록 주름관을 작동시키는 뾰족한 손잡이를 아래 위로 움직이라는 지명을 받았습니다. 가끔씩 저는 이 중요한 임무에 지명되는 커다란 특권을 가졌습니다.

회중이 회복에 관한 아름다운 찬송가를 부르는 동안 저는 공기를 충분히 들여 보내 풍금이 소리를 잘 내도록 있는 힘을 다해 펌프질을 했습니다. 주름관을 움직이는 사람은 예배당 전면을 아름답게 장식한 멋진 스테인드 글라스(착색 유리)가 보이는 자리에 앉을 수도 있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에는 조셉 스미스가 성스러운 숲에서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 빛 기둥을 바라보는 첫번째 시현이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회중이 찬송가를 부르고 회원들이 말씀과 간증을 하는 동안, 저는 세계 역사에서 가장 거룩한 순간을 묘사한 이 그림을 자주 바라보곤 했습니다. 저는 마음의 눈으로 조셉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쓰시는 축복된 도구가 되어 지식과 간증과 신성한 가르침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창문에 묘사되어 있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특별한 영을 느꼈습니다. 저는 성스러운 숲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흐토도르프 회장님이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에 대한 간증을 나누어 주십니다.

진지하게 기도하겠다는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린 믿음에 찬 소년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린 소년으로 제2차 세계 대전 후, 팔마이라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독일의 폐허가 된 도시에서, 그 실제 사건이 일어난 지 백 년 이상이나 지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에 두루 미치는 성신의 권세를 통해 저는 마음과 생각으로 조셉 스미스가 참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들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돌이 굴러 ...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교리와 성약 65:2) 될 세계적인 움직임을 초래한 이 거룩한 순간이 실재라는

확신으로 어린 나이에 제 영혼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때, 성스러운 숲에서 있었던 그 영광스러운 경험에 대한 조셉 스미스의 간증을 믿었으며 지금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

2005년 4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

생각해 볼 점

1. 여러분이 참석하는 교회 건물의 형태가 중요한가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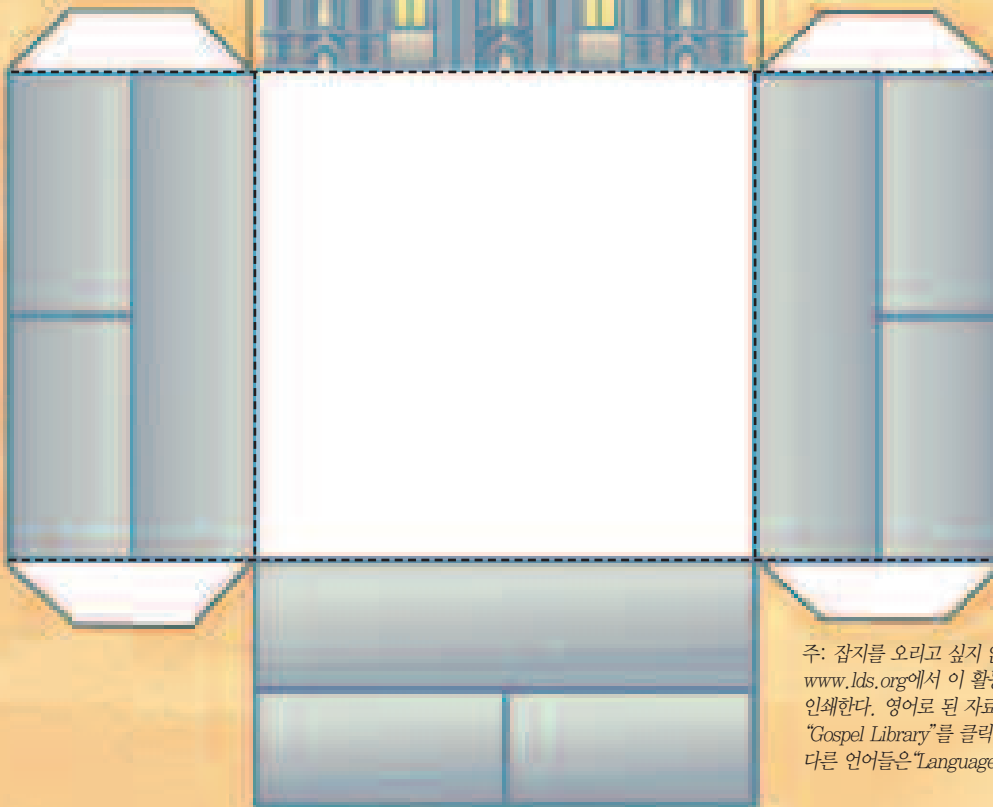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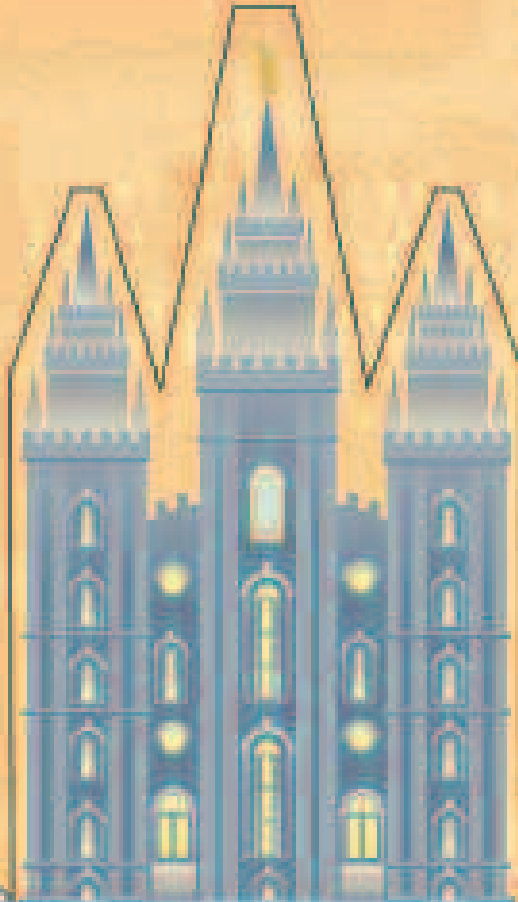
2. “온 세상에 두루 미치는 성신의 권세”란 무슨 뜻일까요? 전 세계에서 교회에 가입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이것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3.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 있나요? 그러한 간증을 갖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올바른 일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잘못했을 때, 회개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침례 성약을 기억하고 성신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건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신에게 정직하겠습니다.
나는 욕이나 거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안식일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느끼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가족을 강화하기 위해 내가 맡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나는 몸과 마음을 성스럽고 깨끗하게 지키고, 나에게 해로운 것은 취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 자신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단정한 옷차림을 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읽고 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음악만을 들겠습니다.
나는 훌륭한 친구들을 사귀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성전에 가기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영원한 가족을 이루기 위해 내가 맡은 일을 하겠습니다.



주: 잡지를 오리고 싶지 않으면 인터넷 사이트
www.lds.org에서 이 활동을 복사하거나
 인쇄한다. 영어로 된 자료를 원하면
 "Gospel Library"를 클릭한다.
 다른 언어들은 "Languages"를 클릭한다.

나는 어릴 때 나 자신을 준비하겠다

“이 집이 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되게 하여 내가 그 안에서 나의
백성에게 나의 의식을 드러낼 수 있게 할지어다”(교리와 성약 124:40)

린다 크리스텐슨



성전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축복입니다. 전 세계에는 120개가 넘는 성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성전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성전 사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 성전에 가서 성스러운 성약을 맺은 사람이 있습니까?

초등학교 노래 “나 성전 보고 싶어”(어린이 노래책, 99)는 성전은 “하나님 집이니,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또한 성전은 “거룩한 곳이니 우리 인봉되는 곳”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이 노래를 부를 때 다음의 노랫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언젠가 갈껴야.”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스러운 집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활동

친4쪽을 떼어내어 두꺼운 종이에 폴로 붙인다. 실선을 따라 성전을 그려내고 점선을 따라 접은 다음 위에 튀어나온 부분을 벽 안쪽에 폴로 붙여 상자를 만든다. 나의 복음 표준 카드(친4쪽)를 오려내어 성전 상자 안에 넣는다. 상자에서 복음 표준 하나를 선택하여 읽고 그 표준대로 생활하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결정한다. 가정의 밤 시간에 이 표준대로 생활하는 것이 여러분이 언젠가 성전에 들어가도록 어떻게 준비시켜 주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성전 상자와 나의 복음 표준 카드를 특별한 장소에 두어 여러분이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한다. 여러분이 복음 표준을 읽고 어떻게 그것대로 생활할 것인지 결정 할 때 다음과 같은 말을 기억한다 “나 성전 보고 싶어” “나 어린 동안 준비해 거룩한 나의 의무.”

함께 나누는 시간 제언

1. 간단한 성전 그림을 그린다. 건축용 블록을 상징하도록 사진을 12개의 직사각형으로 오린다. 각 조각에 1에서 12까지

숫자를 매긴다. 종이 한 조각을 12개로 자르고 12개의 나의 복음 표준 중에서 실천 단어 하나 하나를 각각의 종이에 적는다.(실천 단어: 따르다, 기억하다, 선택하다, 되다, 사용하다, 행하다, 존중하다, 지키다, 입다, 읽다, 보다, 듣다, 찾다, 생활하다.) 종이를 접어서 실천 단어가 보이지 않도록 한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지도서를 준비한다. 성전 짓기 활동을 한다. 교리와 성약 124편 40절을 읽음으로써 시작한다. 칠판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적는다 “이 집이 건축되게 하여.” 한 어린이에게 종이 한 장을 선택하고 실천 단어를 읽도록 부탁한다. 어린이들이 단어를 찾도록 나의 복음 표준을 보게 한다. 단어를 찾으려면 함께 표준을 읽는다. 그 어린이 또는 반원들에게 그 표준대로 생활하는 방법을 생각할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는 그 어린이 또는 반원들이 건축용 블록 1번을 찾아 칠판에 붙이도록 부탁한다.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한다. 모든 복음 표준들은 그들이 영원한 가족을 갖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2. 경전이 들어 있는 주머니 하나를 들어 올린다. 어린이들이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짐작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단서를 제공한다. 어린이들의 추측이 끝났을 때 말라기 3장 10절을 펴고 다음 문구를 읽는다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어.” 어린이들에게 이 경전구절이 무슨 계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추측하도록 부탁한다. 구절을 함께 읽고 다음과 같은 약속에 귀 기울인다. “복을 붓는다.”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주신 몇몇 축복들을 말하도록 부탁하고 칠판에 목록을 작성한다. 각각의 어린이들에게 종이 한 장을 준다. 그들에게 축복 한 가지를 쓰거나 그리도록 부탁한다. 어린이들이 마쳤을 때 조용히 종이를 말아 공을 만들도록 부탁한다. 공들을 주머니에 넣는다. 한 신권 지도자에게 손을 뻗어 공을 잡도록 부탁한다. 공을 그의 손에 붓고 그것이 넘치는 것을 본다. 다음과 같은 약속을 읽는다: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가 십일조의 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많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어린이들이 이해하도록 돕는다. 십일조가 성전을 짓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설명한다. ●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금판을 받음



어느 날 밤, 조셉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 지를 알고자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빛이 방을 가득 채웠고 모로나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천사였습니다. 그는 조셉에게 금판 위에 새겨진 고대 기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시현은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조셉은 너무 피곤해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아,
집에 가서 쉬는 게 좋겠구나.



조셉이 돌아오는 길에, 모로나이가 조셉에게 나타났고 그가 전날 밤에 말한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셉에게 그 시현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조셉,
그 시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란다. 천사가 말
한대로 하거라.

조셉은 쿠모라 산으로 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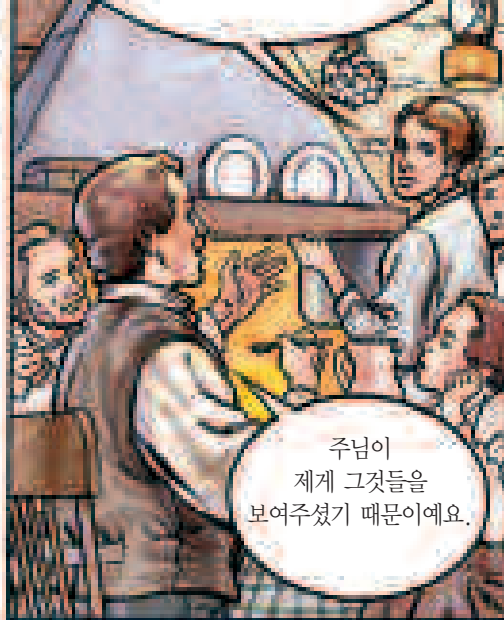
그가 큰 바위를 들어 올렸을 때 그는 금판, 우림과 둠뎀 그리고 돌상자 안에 묻혀진 가슴판을 보았습니다.

모로나이는 그에게 4년 동안 매년 다시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기간에, 조셉은 많은 시현을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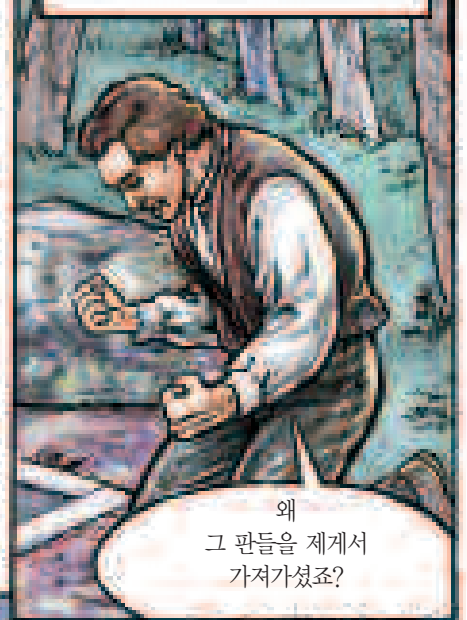
그는 그것들에 대해 가족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조셉,
너는 한때 이 대륙에 살았던
사람들에 관해 이야기하는구나. 마치
네가 평생을 그들과 함께 살았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구나.



주님이
제게 그것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해, 조셉은 그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그 상자에서
금판을 꺼냈고 그것들을 잠깐 땅
위에 놓았습니다. 그가 그것들을
다시 집으려고 했을 때, 그것들은
사라졌습니다!



왜
그 판들을 제게서
가져가셨죠?

모로나이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조셉이
좀 더 순종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아직 가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너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판들이 네 손을 떠나지 않게
하도록 명을 받았지만,

조셉은 좀 더 순종하고
조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827년 9월 22일, 조셉과
아내 에머는 한밤중에
쿠모라 산으로 갔습니다.
조셉이 산을 오르는 동안
에머는 마차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다음 날 아침에 돌아왔을 때
조셉의 어머니는 기뻐했습니다.

제가
드디어 판들을
갖게 되었어요.

너는
이를 잊어버렸고
불순종하였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회장님께서서는 서한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소년 소녀들이 복음을 배우고 그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봉사함으로써, 그리고 그들의 재능을 발전시킴으로써 더욱 큰 신앙과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일회장단 서한, 2003년 4월 2일)

오늘날 세상에서 여러분은 큰 신앙과

위(왼쪽부터): 마거릿 에스 리퍼스, 제1보좌; 체럴 시 렌트, 회장; 비키 에프 마주모리, 제2보좌.

본부 초등회 회장단

9살 된 셸비가 가정의 밤 시간에 개회기도를 했습니다. “셸비,” 엄마가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활동 중 하나를 거의 다 마쳤다고 생각한다. 너는 바로 몇 주 전 가정의 밤 시간에 폐회기도를 했잖니. 이제 너는 어떻게 기도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께 가까이 머물도록 도움을 주는가에 대한 너의 느낌을 이야기해야 한다.”

셸비는 방에서 나갔다가 그녀의 일기장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에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았을 때 도움을 구하기 위해 차 뒷좌석에서 기도

한 것에 대해 읽었습니다. 거의 동시에 한 이웃이 와서는 문제를 고쳐 주었습니다. 셸비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활동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어린이들처럼 셸비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하나의 프로그램 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하는 것을 실천하면서 신앙을 키우는 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프로그램이 2003년에 소개되었을 때 고든 비 헝클리 회장님과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 제임스 이 파우스트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경전을 읽고 계명을 지킴으로써 이러한 자질들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혹은 다른 방법으로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것은 지도서에 명시된 기본적인 필요 조건들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은 여덟 살이 될 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 지도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몇몇 지역에서는 어린이들이

한 달에 두 번씩 활동의 날 지도자와 함께 모여 우정을 쌓고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실천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교회 회원 수가 적거나 회원들간의 거리가 먼 다른 지역에서는 어린이들이 그들의 가족과 또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실천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하는 것을 실천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초등회 지도자들이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초등회 회장단의 일원이 여러분을 격려하고 완수된 활동들에 대해 보고를 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여러분이 신앙개조를 암기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소년들에게는 스카우트 분대의 지도자들이 스카우트 활동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 목표들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또한 여러분의 가족을 강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린지는 얼마 전에 여덟 살이 되었으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 지도서 한 권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와 함께 지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린지는 가정의 밤 공과를 준비하겠다고 자청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지도서에서 한 가지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가족의 도움으로 린지는 가정의 밤 시간에 발표를 했고 한 가지 활동도 완수했습니다.

다른 가족들 또한 가정의 밤을 돕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사용했습니다. 한 가족은 매주마다 매번 다른 신앙개조를 선택해 공부하고 암기했습니다. 또 다른 가족은 아이들이 공과를 할 차례에는 그들이 지도서에서

활동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부모 자녀 봉사활동을 위해(지도서 9쪽 참조), 마이클 가족은 각각의 가족들이 다른 사람에게 가져다 줄 사과파이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이클은 그의 파이를 불친절했던 한 가족에게 갖다 줘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걱정을 했지만 마이클은 끝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마이클 가족은 파이를 배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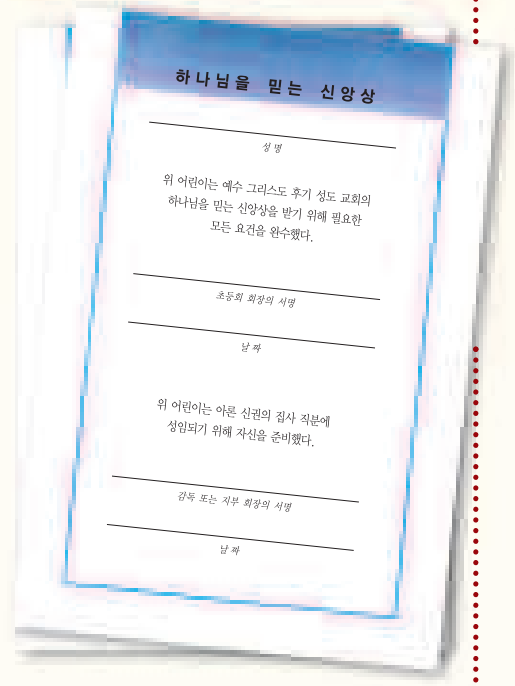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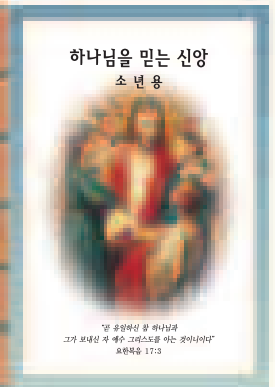


그들은 그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과 불친절함은 그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이클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두 가족은 훌륭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 사항들을 완수할 때 여러분은 지도서의 뒷장에 있는 수료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초등회 회장과 감독님 또는 지부 회장님이 그것에 서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위대한 축복은 여러분이 복음에 따라 생활하고 여러분을 강하고 용감하게 되도록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위한 필요 사항을 완수할 때 여러분은 아론신권을

받거나 또는 의로운 청년이 되기에 더 잘 준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로운 삶의 양식을 정착시킬 것이며 복음대로 생활하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며 여러분의 재능을 발전시킬 기회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강화할 것입니다. ●



나의 복음 표준 맞추기 게임

선을 그어 관련된 두 문구를 이어준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지도서의 뒷면에서 도움을 얻는다.*

나는 ____ 을 따르겠습니다.

욕이나 거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침례 성약을 기억하고 ____

가족을 강화하기 위해 내가 맡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나는 올바른 일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____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해로운 것은 취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____ 정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건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겠습니다.

나는 안식일에 ____ 일을 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나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____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느끼는 데 도움이 되는

나는 몸과 마음을 성스럽고 깨끗하게 지키고 ____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나는 ____ 단정한 옷차림을 하겠습니다.

영원한 가족을 이루기 위해
내가 맡은 일을 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____ 것만 읽고 보겠습니다.

성신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나는 오직 ____ 음악만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 자신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나는 훌륭한 친구들을 사귀고 ____

하나님 아버지께,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신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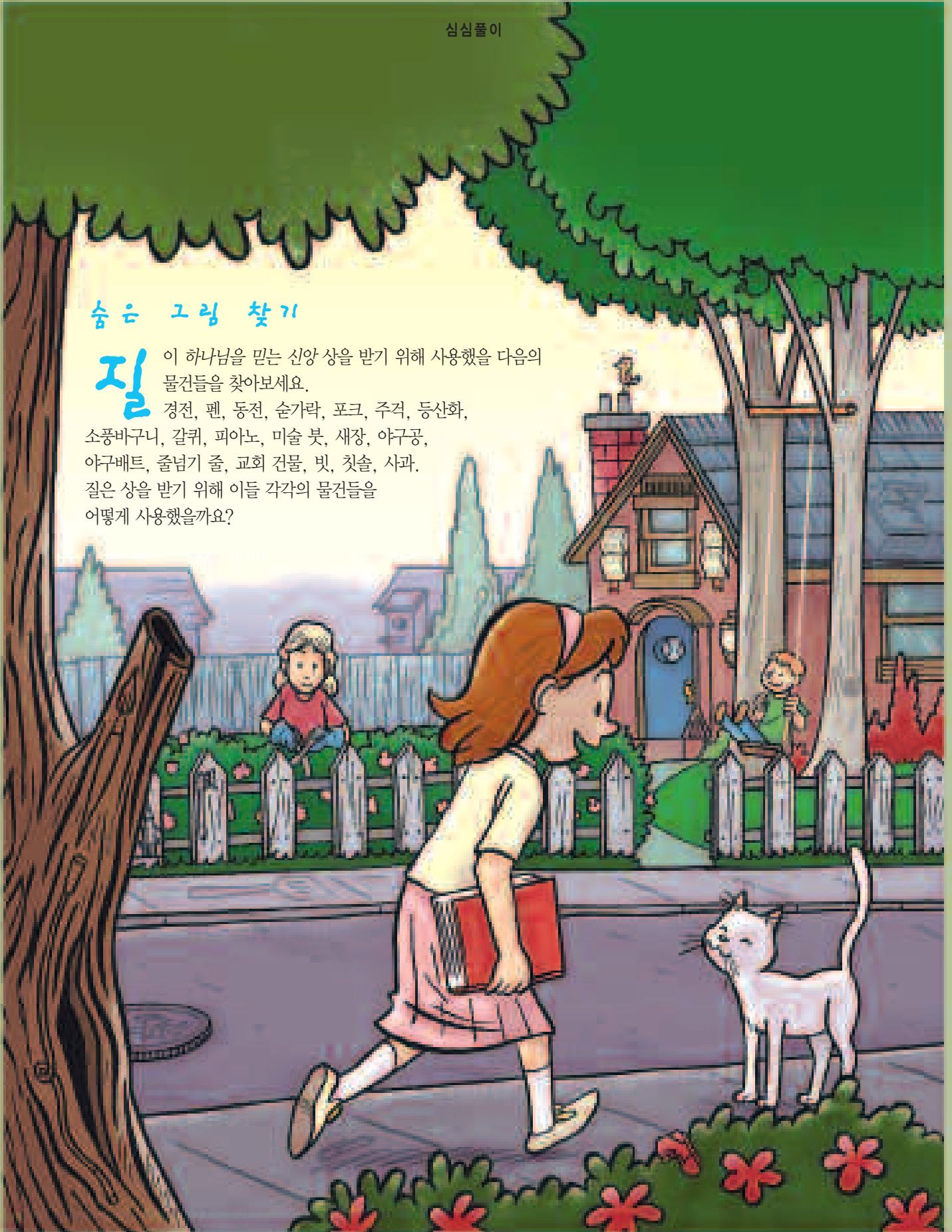
나는 지금 성전에 가기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____

내가 잘못했을 때 회개할 수 있음을

숨은 그림 찾기

질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상을 받기 위해 사용했을 다음의 물건들을 찾아보세요.

경전, 펜, 동전, 숟가락, 포크, 주걱, 등산화,
소풍바구니, 갈퀴, 피아노, 미술 붓, 새장, 야구공,
야구배트, 줄넘기 줄, 교회 건물, 빗, 칫솔, 사과.
질은 상을 받기 위해 이들 각각의 물건들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브라질의 안식일 **복장**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신명기 5:12)

네이든 엔 웨이트

브라질의 미나스 제라이스에는 겨울이 없다. 건기와 우기로 나뉘 뿐이다.

이곳은 덥고 동시에 습한 곳이 될 수 있다. 콘셀레이루 라파이에테 지부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아주 더운 날씨 속에서도 안식일 복장을 착용함으로써 오는 축복에 대해 배웠다.

초등학교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던 패트리샤 다 코스타 자매는 초등학교의 표준 복장에 대해 염려하기 시작했다. “무더운 날씨 때문에 어린이들이 안식일 복장을 착용하는 것이 어려워요.”라고 그녀는 말한다. “그리고 그전까지 아무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교회에 갈 때 정장을 입는 것이 사소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코스타 자매는 그것이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존경을 나타내

보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린이들이 미래를 위한 좋은 습관을 기르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는 목표를 세웠다. 안식일 복장이 없는 아이들에게는 가족들이 그것을 구해주었다. 그들은 합당한 안식일 복장을 보여주기 위해 초등학교에서 퍼레이드 행사를 가지기도 하였다.

쉽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목표를 달성했다. “초등학교 성찬식 발표가 있던 날 모든 어린이가 합당한 복장을 착용했습니다.”라고 다 코스타 자매는 말한다. “아주 훌륭했어요!”

지부의 많은 회원들은 변화를 감지했다. 어린이들이 더 경건해졌고 이제 그들은 부모님들이 말하지 않아도 안식일에는 정장을 입는다.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또 다른 축복이 하나 있었다. 아이들의 모범 덕분에 저활동 부모들이 교회에 다시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



단지 하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웬디 엘리슨
실화에 근거함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함께 모여 성전에 올라가”(모사이사서 1:18)

어느 날처럼 토요일이 시작되었다. 태양이 콜린의 집 옆에 있는 산 위로 떠올랐고, 햇빛이 침실 창문을 통해 천천히 스며들었다. 다른 날 같았으면 이불 속으로 숨어 침대에 계속 있으려고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콜린은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펴고는 침대에서 기어 나왔다. 왜냐하면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예정이었고 그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보통 토요일은 친구들과 놀거나 발 일을 돕거나 심부름을 한 후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방문하는 날이었다. 그는 더럽혀져도 되는 편안한 옷을 자주 입곤 했다. 대신 그는 엄마가 그를 위해 세탁을 하고 다려놓은 안식일 복장을 입었다. 그는 와이셔츠의 단추를 채우고는 조심스럽게 양복 바지 속으로 집어넣었다. 그는 양말과 신발을 신고 목에 넥타이를 매다-아버지가 매는 것을 도와주었다. 어머니가 “가야 할 시간 이에요”라고 소리쳤을 때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밴에 탄 모든 사람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한 후 아빠는 차를 몰고 거리로 나가 길의 모퉁이를 돌았다. 그들이 성전에 도착했을 때 콜린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햇빛에 빛나는 부드러운 표면과 탑 꼭대기와 모로나이 천사를 향해 뻗어있는 다채로운 착색 유리창들을 보았다.

콜린은 성전을 여러 번 보았었다. 그는 전에 성전 안에 들어간 적도 있었다. 한번은 그가 태어난지 6개월 됐을 때 부모님에게 인봉되기 위해서였고, 그의 부모님이 남동생 케이든을 입양했을 때 또 다시 그곳에 갔었다. 그 두 번의 경험을 기억하기에는 콜린은 너무 어렸지만 자라면서 그는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콜린은 이 특별한 토요일 방문 이후에 입양된 막내 여동생 살다가 그녀의 오빠들처럼 영원히 가족의 일부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보통 다른 날에는 콜린은 웃는 것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커다란 성전 문을 들어갔을 때 그는 모든 장난과 웃음을 뒤에 남겨두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성전이 성스러운 장소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친절한 성전 봉사자들이 콜린과 케이든, 살다를 어린이들을 위한 방에 데려갔고 그곳에서 그들은 하얀 옷을 입고 엄마와 아빠가 기다리고 있는 인봉실에 가야 할 시간이 될 때까지 머물렀다. 인봉실에서 콜린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삼촌과 고모, 가족 친구들, 그리고 몇몇 와드의 회원들을 보았다. 몇몇 사람들이 눈물을 닦아 내긴 했지만, 그날은 행복한 날이었다.

성전 인봉자가 힘찬 악수와 미소로 소년들을 맞이했다. 인봉자는 하얀 옷을 입은 그들의 모습이 멋지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소년들에게 항상 옳은 선택을 함으로써 선교 사업을 준비하고 성전에 다시 돌아오라고 격려했다. 그리고는 앞으로 진행될 일의 중요성에 대해 상기시켜 주었다. 그 후, 그는 인봉 의식을 시작했다.

인봉이 끝났을 때 콜린과 그의 가족은 서서 방 양쪽에 있는 거울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빠와 엄마, 남동생, 그리고 막내 여동생과 함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반사된 모습은 끝이 없었다. 영원한 가족처럼 말이다. 콜린은 성전 덕분에 그의 가족이 그 날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



“우리는 영원히 지속될 기쁨과
사랑하는 관계를 가지고
성전에서 가족을 이루고
인봉되어야 합니다.”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뿌리와 가지,”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29쪽.



성전 앞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성전은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한 축복이다.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집이 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되게 하여 내가 그 안에서 나의 백성에게 나의 의식을 드러낼 수 있게 할지이다.”(교리와 성약 124:40)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6대 회장

리아호나 부록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교 회에서 여러 부름을 받아 봉사하는 동안,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사무실을 여러 곳 옮겨 다니셨습니다. 옮길 때마다 그분은 특별한 그림을 조심스럽게 가지고 다니셨습니다. 회장은 1950년대에 감독으로 봉사할 때부터 그 그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토론토에 본부를 둔 캐나다 선교부를 감리하실 때에도 그 그림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 그림은 이제 그분이 교회 회장으로 사용하시는 사무실에 걸려 있습니다. 그 그림은 유명한 화가 하인리히 호프만이 그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상적인 모습입니다.

그 그림은 사무실 벽을 장식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모퉁잇돌”(에베소서 2:20)이 누구인지를 상기시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회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구주의 살아 있는 증인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그림은 이상, 즉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자신의 삶의 본보기로 삼으셨던 주님을 나타냅니다. 몬슨 회장은 그 그림을 다시 한 번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저 그림을 좋아합니다. 저 그림을 가까이 두면 힘을 느낍니다. 그 눈에서 발하는 친절함을 보십시오. 따스한 표정을 보십시오.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저는 종종 저 그림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다음 그 응답에 따라 행하려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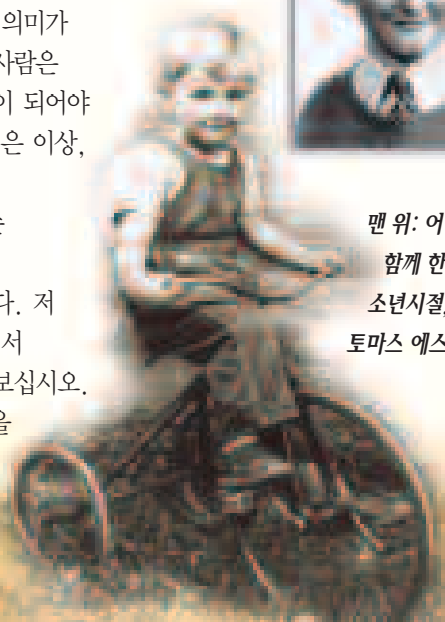
주님에 대한 그 충성, 주님의 모범을 꾸준히 참조하는 그 자세, 구주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 걷겠다는 그 결심, 이러한 것들이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의 삶과 지도력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들입니다. 제자로서의 그분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은 아끼던 장난감을 자신보다 더 필요로 하는 다른 소년에게 주고 친구의 가족이



성탄절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애지중지 키우던 두 마리의 토끼를 내준 소년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와드 내에 있는 84명의 미망인을 세심하게 돌보았고 수십 년간 그들을 염두에 둔 젊은 감독이었습니다. 그분은 성신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 한 어린이를

맨 위: 어머니와 아버지(앞에 앉아 있음)를 비롯하여 가족과 함께 한 십대의 토마스 몬슨(왼쪽에서 두 번째). 위와 왼쪽: 소년시절, 몬슨 회장은 “토미”로 알려졌음. 맞은편 페이지: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과 아내 프랜시스, 일리노이 나부 성전에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의
생애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

1927년 8월 21일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지
스펜서와 글래디스 콘디
몬슨에게서 태어남.

1945~1946년

미 해군 예비대로 복무함.



1948년

유타 대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함.

데저렛 뉴스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함.

돌보기 위해 모임 계획을 변경해야 할 때를 아시는
총관리 역원입니다.

그분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분이 이런 일들을
하신 이유가 단순히 부모님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셨다거나, 미망인을 돌보는 것이 감독의
책임이었다거나, 이러한 일이 사도로서의
역할이었기 때문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와 같은 비이기적인 봉사를 하신 것은 그것이

바로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그러한 일들이 주님께서 하셨을
일들이기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몬슨 회장님은 자신이 종종
인용하시는 성구처럼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신 나사렛 예수”(사도행전 10:38)의 참된
제자이십니다. 그분의 책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위: 외로운 이웃에게
따뜻한 음식 접시를
가져다드리려는 일은 어린
토미 몬슨이 봉사하는
방법을 배운 많은 방법
가운데 하나였다. 맞은편
페이지: 몬슨 회장(아들
클라크와 함께 사진
찍음)은 소년 시절 낚시의
재미를 알게 되었으며
후에 그것을 자녀들과
함께 하는 전통으로
이어갔다.

양의 행정적인 결정과 서류 작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의 양 때문에 그분의 본보기가 되는 분이 섬기실 사람들에게서 눈길을 돌리지는 않았습니 다. 그분의 삶은 각 개인에게 손길을 뻗치고, 불우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잊혀지기 쉬운 사람들을 기억하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약한 자를 도우라. 처진 손을 일으켜 세우며,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하라.”(교리와 성약 81:5)는 거룩한 명령을 그토록 존중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시작

토마스 스펜서 몬슨이라는 분이 어떻게 오늘의 그가 되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뿌리와 그분이 성장한 환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은 1927년 8월 21일, 조지 스펜서와 글래디스 콘디 몬슨의 첫째 아들이자 둘째 자녀로 태어났습니 다. 부친쪽 가계를 보면 스웨덴과 영국인 조상을 두고 있고, 모친쪽은 스코틀랜드인입니다. 그분의 증조부는 몬스 오케슨이었으며 스웨덴식 성에 따르면, 그분의 조부는 넬스 몬슨이었습니다. 그분의 부친 때부터 시작하여, 가족의 성은 일반 미국식을 따라

몬슨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몬슨 회장님의 이름은 외조부인 토마스 샤프 콘디와 그분의 부친인 스펜서 몬슨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솔트레이크시티의 서부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 지역은 부유하거나 영향력 있는 가족들이 모여 사는 곳은 아니었으나, 주변에는 사랑이 넘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특히 그분의 가정이 그랬습니 다. 그분의 가족은 철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았으므로, 그 가정은 1930년대의 대공황 시기에 그 철길을 따라 여행하며 떠돌던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 익숙했습니다. 이 여행자들 중에는 십대 소년들도 더러 있었는데, 이들이 몬슨 가족의 뒷문을 두드리면, 이 가족은 모친인 글래디스 몬슨이 그들을 맞아들여 부엌 식탁에 앉히시고는 샌드위치를 준비하고 함께 줄 우유를 잔에 따르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때는 어머니가 준비한 따뜻한 음식 접시를 톰의 할아버지가 마련해 준 집에 살던 외로운 이웃인 “올드 밥” 아저씨에게 가져다드리려는 것이 어린 토미의 일이었습니다. 몬슨 가족의 동네에 살던 많은 이웃들은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풍족하게 받았습니다.

종종 일요일 오후에 어린 톰은 아버지가

“일라이어스 삼촌”(부친의 삼촌)을 태우고 시내를 구경시켜주시는 데 따라가곤 했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부친이 관절염으로 다리를 절었던 허약한 삼촌을 조심스럽게 차가 있는 곳으로 부축해서 전경을 잘 볼 수 있는 앞좌석에 앉히시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회상하십니다. “드라이브는 잠깐이었고 그다지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유산입니까! 부친은 제게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보다 그분은 저와 일라이어스 삼촌을 낳은 1928년식 자동차 올즈모빌에 태우고 다니시면서 제가 늘 기억했던 산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부친의 모범 또한 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부친인 지 스펜서 몬슨은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내며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가 인쇄소를 경영했으므로, 어린 나이에 톰은 인쇄업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인쇄업 경영은 후에 그분의 직업이 되었습니다. 1948년에 유타 대학교에서 경영학 학위를 받고 (우등으로) 졸업한 후, 교회 소유의 일간지인 데저렛 뉴스의 광고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학습이 중요함을 굳게 믿었으므로, 이후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하시는 동안에도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고자 하셨습니다.) 그분은 1959년에 캐나다 선교부를 감리하도록 부름 받을 때까지 11년 동안 신문사와 인쇄업계에서 일하셨습니다. 선교부 회장으로서의 봉사를 마친 후, 그분은 신문사인 데저렛 출판사의 사장으로 복직하셨습니다. 직업에 몸담은 동안 인쇄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분은 오래 전에 부친이 보이셨던 것과 똑같은 신중함과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친밀한 가족 안에서의 소년 시절

어린 토미의 사진을 보면 생기 있고, 눈에 약간의 장난기 어린 표정을 지닌 잘 생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전형적인 소년이었다고 서슴없이 시인하십니다. 그분은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다음과 같은 경험을 들려주십니다.

“트레커 시절[10세 어린이를 위한 반에, 저는 초등학교에서 우리가 항상 올바르게 행동하지는 않았음을 기억합니다. 저는 힘이 넘쳤으며 공과 시간에 참을성 있게 앉아 있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멜리사 조겔 자매님이 우리 와드의 초등학교 회장이셨습니다. 하루는 그분이 제게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예배실의 맨 앞좌석에 앉았는데, 그분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특정한 몇몇 소년들이 초등학교 개회 순서 때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아서 슬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진하게도, 저는 ‘조겔 자매님, 제가 도와 드릴까요?’ 하고 말했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띠고 눈을 반짝이며, 그 자매님은 ‘그래 주겠니?’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초등학교의 규율 문제는 그 순간에 해결되었습니다.” 하며 그분은 웃으십니다.

솔트레이크시티 500 사우스 200 웨스트에, 외조부인 토마스 콘디는 자신의 딸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 네 채의 집을 지으셨습니다. “콘디의 단지”로 알려지게 된 그 지역에서, 토미 몬슨은 항상 가족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외사촌들의 집을



1948년 10월 7일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프랜시스 비벌리 존슨과
결혼함.



1950년 5월 7일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뷰
스테이크의 제6~7와드
감독으로 지지 받음.

1953년
데저렛 출판사 영업
책임자로 지명됨.

1955년 6월 26일
템플 뷰 스테이크
회장단의 제2보좌로 지지
받음.

195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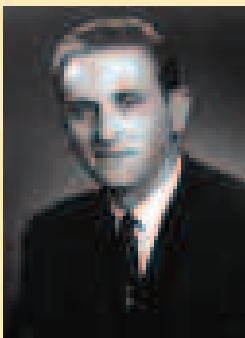
데저렛 출판사의 사장으로
임명됨.

1959~1962년

토론토에 본부를 둔
캐나다 선교부의 회장으로
봉사함.

1962년 2월 1일

밸리 뷰 스테이크의
고등평의원으로 지지
받음.



1963년 10월 4일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으로 지지 받음.

1966년

유타 대학교에서 '올해의
우수 동문상'을 받음.

본인 집처럼 자유롭게 드나들었습니다. 그는
솔트레이크 밸리의 한 지역인 그랜저에 있는 콘디
가족 농장에 가기를 좋아했습니다. 그곳은 당시
전원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주택가와 상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름에 해야 할 일들로 바빠지게
되는 십대 중반 이전까지, 그는 집에서
95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프로보 캐년의 비비안
공원에 있는 가족 통나무집에서 시간 보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외사촌들과 함께
밖에서 놀고 강에서 수영(한번은 물에 빠진 여성을
구한 적도 있음)도 했습니다. 이 강에서 또한
낚시의 재미를 알게 되어, 평생을 두고 즐기는
취미가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오리와 다른 새들을 사냥하는 법을
배웠으나, 결국 새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일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소년 시절 그는 비둘기에
매료되어 집에서 그것들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는 그가 키운 새들로 상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그의 비둘기는 지도력에 관하여
오랫동안 잊지 못할 몇 가지 교훈을 안겨준 열쇠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 톰 몬슨이 와드에서 교사
정원회 회장이었을 때, 그는 정원회 고문이 새를
키우는 자신의 관심에 대해 물으셨을 때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고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에게 버밍햄 롤러 비둘기 순종
한 쌍을 줄까 하는데 어때냐?" 그 암컷은
특별한 새라고 고문은 설명하셨습니다.
그 새는 눈이 하나 밖에 없는데 한쪽은
고양이 때문에 손상을 입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고문의 지시에 따라, 그는 그
비둘기들을 자신의
새장

안에 10일 정도 놓아 둔 다음, 다시 돌아오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들을 놓아 주었습니다. 수컷은
돌아왔으나 암컷은 고문의 집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톰이 그 암컷을 가지러 갔을 때,
고문은 그에게 정원회에서 활동하지 않는 한
소년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톰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정원회 모임에 그를
데려오겠습니다." 그는 비둘기를 집으로
가져왔으나 그들을 다시 놓아주었을 때, 암컷은 또
고문의 집으로 날아갔습니다. 톰이 비둘기를
가지러 다시 갔을 때, 고문은 정원회 모임에 오지
않는 다른 소년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비둘기를
놓아 줄 때마다, 그 암컷은 고문의 집으로
돌아갔고, 그때마다 톰은 그것을 가지러 갔으며,
그곳에서 또 다른 소년에 대해 고문과 함께 대화를
하곤 했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회상하십니다. "고문인



해롤드 형제님은 자신의 새장에
있는 유일한 새인 그 특별한
비둘기를 저에게 주셨고, 그
새를 풀어줄 때마다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그분이
알고 계셨다는 것을 제가
완전히 깨닫기도 전에 저는
성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격주마다 교사 정원회
회장과 이상적으로 개인 신권 집견을
하는 영감 받은 방법이었습니다. 그 신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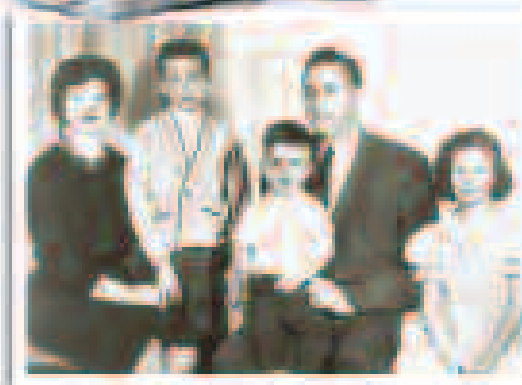




접견과 그 오래된 외눈박이 비둘기 때문에 교사 정원회에 있는 모든 소년은 활동 회원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됨

그가 십대 중반이었을 때, 제2차 세계 대전은 그의 연령대의 젊은이들에게 불가피한 미래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톰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유타 대학교에 등록했습니다. 18세가 되자, 그는 확실히 징집이 되어 군복무를 하게 될 것으로 보였으므로 미 해군에 입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입대에 대해 그가 내린 결정은 그의 앞날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해군 예비대에 지원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예비대에 속하게 되면 부대에서 군복무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전쟁이 끝나고 병력이 감축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며 대학에 복학했습니다. 또한 프란시스 비벌리 존슨과의 교제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당시에 대학에 복학하는 것보다 프란시스와의



교제가 훨씬 더 중요했다고 고백하십니다.)

톰과 프란시스는 대학교에서 첫해에 만났습니다. 그와 그녀의 가족과의 관계는 그가 그녀의 가족에게 처음 소개되었을 때 확고해졌습니다. 톰이 방문했을 때, 프란시스의 부친은 두 명의 중산모를 쓴 오래 전의 후기 성도 선교사의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사진에 있는 둘 중 한 사람을 가리키며 그 몬슨과 관계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톰은 그분이 부친의 삼촌인 일라이어스라고 대답했습니다. 프란시스의 부친은 일라이어스 몬슨 장로가 자신의 가족이 복음으로 개종하도록 도와주었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톰은 구애의 시작이 특별히 좋다는 것을 알고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은편 페이지: 몬슨 회장은 버밍햄 롤러 비둘기 키우는 일을 좋아했다. 위: 몬슨 회장은 중요한 교회 봉사의 기회를 일찍 맞이했다. 그는 22살에 감독 부름을 받았으며 36살에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위 왼쪽: 세 자녀, 토마스, 클라크 그리고 앤과 함께 있는 프란시스와 토마스 몬슨.



위: 몬슨 회장이
1965년에 통가 선교부를
방문하였다. 맞은편
페이지, 맨 위에서부터:
몬슨 회장은 소년단에서
오랫동안 봉사한 경력을
갖고 있다. 그는 교회를
도와 독일 프라이베르그
성전을 짓기 위한 허가를
받았다. (1985년 일반
공개 기간 동안의 모습)
그는 1981년에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민간
부문 창의력에 대한
대통령 특별자문위원회에
임명되었다.

토마스 몬슨과 프란시스 존슨은 1948년 10월 7일,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습니다.

몬슨 자매님은 남편이 교회에서 바쁘게 봉사하지 않았던 때가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자매님은 미소를 지으며, “남편은 와드 서기로 봉사했고, 우리가 결혼했을 당시에는 청남 조직을 담당했으며, 그 이후로 이런 저런 부름을 받아 계속 봉사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1950년 5월, 22세의 나이에 와드 감독으로 부름 받은 이후로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직분에 계속해서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남편이 주님의 사업을 하는 것이 결코 희생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를 축복하고 우리 아이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는 교회 일이라면 그것을 하는 것이 제 바램이요 기대라는 것을 늘 알고 있었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아내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내가 제 교회의 책임에 대해 한번도 불평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 날 동안 집을 비운 적이 있으며, 모임에서 아내와 함께 앉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로 없습니다. 아내는 모든 면에서 저를 지지하며, 온화하고 아주 강한 신앙을 지닌 여성입니다.”

그분은 아내가 세 자녀, 즉 토마스 리, 앤

프란시스, 그리고 클라크 스펜서 몬슨을 위해 튼튼한 가정 환경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그 세 자녀는 몬슨 회장님 부부에게 여덟 명의 손자녀와 네 명의 증손자녀를 안겨주었습니다.

아들인 클라크 에스 몬슨은 그의 부친이 교회 일로 자주 여행을 하고 주말에 집을 비울 때가 많았지만, “항상 자녀들을 위해 시간을 내셨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십니다. 저는 부친과 함께 하는 시간을 빼앗겼다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부친은 집에 오시면, 우리와 함께 게임을 하고 우리를 데리고 나가 아이스크림을 사 주시곤 했습니다. 여름에는 여가 시간이 더 많아서 우리는 이 시간을 프로보 캐년에 있는 가족 통나무집에서 함께 보내곤 했습니다. 저는 부친과 함께 낚시를 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버지가 아들과 시간을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몬슨 회장님 부부의 딸인 앤 몬슨 님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도와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어머니를 존경하고 도와드리는 것임을 늘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부친이 항상 사랑이 많고 자녀들을 지지하셨으며 지금은 손자손녀들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제 아들들은 할아버지가 잔디 깎으시는 일을 도와드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모든 가족들은 가족 통나무집에 있는 벽난로 주변에 앉아 마시멜로를 구워먹으면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녀는 부친이 배우신 것을 나누는 데 있어 항상 관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경험을 통해 배우신 것은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얻은 것으로, 그분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누구라도 그런 젊은 나이에 감독의 부름을 받는다면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와드는 회원이 1,080명이나 되었으며 그 중 감독의 보살핌을 요하는 미망인이 84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몬슨 감독은 그 집에 눌러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으셨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나가서 일하셨습니다. 그는 봉사하고, 사랑하고, 강화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의무였으나, 그의 마음이 지시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리와 성약 64:29)

많은 교회 회원들은 그분이 미망인들의 필요사항을 위해 일하신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성탄절기에, 그는 미망인들이 가장 반기는 음식 선물을 들고 그들을 한 사람씩

방문하곤 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그 선물은 직접 키워서 요리될 준비가 된 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미망인을 다 방문하는 데 개인 휴가 중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가 감독에서 해임된 후에도 오랫동안 그 미망인들은 그가 오리라는 것을 알고, 매년 그의 방문을 고대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만년에도 계속 방문하였으며,



다소 기적적으로 84명의 미망인 모두의 장례식에서 말씀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직도 지역 양로원과 요양소를 정기적으로 찾아가, “그의” 미망인들과 다른 친구들이 그 곳에 머물렀던 때 알게 된 이들을 위문하십니다.

딤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야고보서에 있는 세 가지 성구에 따라 생활하십니다. 첫째는 야고보서 1장 22절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 … 는 자가 되지 말라’ 이고, 둘째는 야고보서 1장 25절로,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셋째는 야고보서 1장 27절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입니다.”그녀는 몬슨

회장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식에서 구주를 닮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어떤 시련이나 슬픔을 겪는가에 상관 없이, 아버지는 손을 내미십니다. 아버지는



1971년

미국의 실버 비버 소년단 상을 받음.

1974년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음.

1975년 4월 27일

선교 사업을 위해 독일 민주 공화국(동독)을 재헌납함.

1978년

미국 소년단의 최고 상인 실버 버팔로 상을 받음.

198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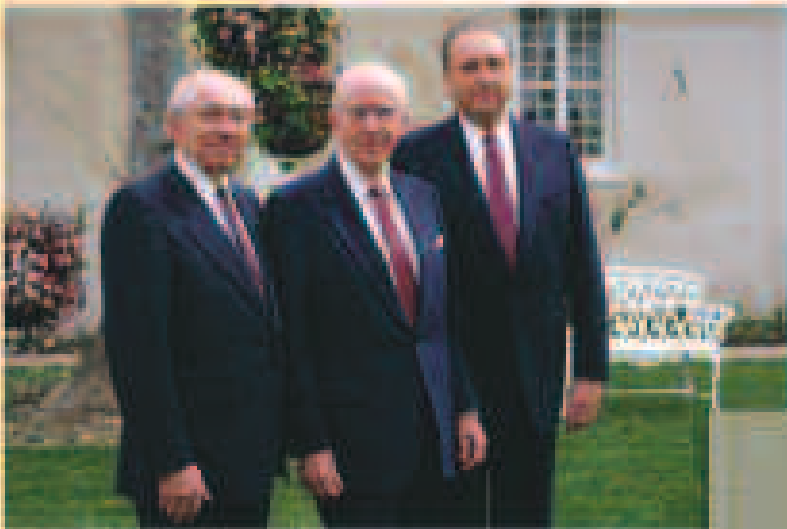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명예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음.

1983년 4월 23일

독일 프라이베르그 성전 기공식을 감리함.

1985년 11월 10일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의 제2보좌로
성별됨.

1986년 1월 17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성전을 헌납함.



1993년
세계 소년단 위원회로부터
브론즈 울프 상을 받음.

1994년 6월 5일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의 제2보좌로
성별됨.

1995년 3월 12일
고든 비 힙클리 회장의
제1보좌로 성별됨.

그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신뢰를
적용할 때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굳건하게 하며,
복돋아주십니다.”

친구와 주님에 대한 충성심

그분이 친애하는 친구들에 대해 가지시는
충실한 관심은 충성심의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그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는
확연히 보이는 자질 중 하나입니다. 그분이 만나는

거의 모든 사람은 그분의 친구가
되고, 그들에 대한 충성심의
유대는 결코 깨어지지 않는 관계로
발전합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의
벗들과 여전히 좋은 친구로
지내십니다. 예를 들어,
호화관람석에서 유타 재즈 농구
경기를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분은 민간 및 사업
지도자들 혹은 다른 영향력 있는 지인들을 초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과거에 알던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친구들을 초대하여 그들과
함께 열심히 농구 경기를 관람하는 쪽을 택하실
것입니다. 몬슨 회장님이 그 친구들과 함께 보낸
과거를 추억하실 때면, 그들에 대해 여전히 갖고
계신 충성심이 목소리 톤에서도 배어나는 그분의

이야기를 그 친구들을 모르는 사람들조차 재미
있게 경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이
지니신 또 다른 종류의 충성심, 즉 영의 음성에
순종하는 충성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젊은
감독으로서, 그는 어느 날 저녁 와드의 한 연로한
회원이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재향군인 병원에
실려 가셨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식을 전한
사람은 그가 그 회원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 올 수
있겠는지 물었습니다. 몬슨 감독은 막 스테이크
모임에 가려던 참이라고 설명하면서, 모임이
끝나는 대로 즉시 병원에 들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지도자 모임에서 그는 마음이 불안하고 편치
않았습니다. 즉시 모임을 떠나 곧바로 병원으로
가라는 강력한 속삭임이 왔습니다. 그러나
스테이크 회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중에 밖으로
나가는 것은 분명 실례가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스테이크 회장님의 말씀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폐회기도를 하기 전에야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병원 복도를 달렸습니다. 그
회원의 병실 밖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가 이제 막 도착한 그분을
보며 “혹시 몬슨 감독님이세요?”하고 물었습니다.
“예” 하고 그가 걱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감독님의 이름을 부르시더군요.”



맞은편 페이지, 왼쪽부터: 교회 회장으로 지지 받기 전, 몬슨 회장은 제일회장단에서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 및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보좌로 봉사했다.
(위와 오른쪽)



젊은 감독은 그날 밤 병원을 걸어 나오면서, 다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느낌에 따라 행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분은 그 맹세에 누구보다도 더 충실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분의 생애는 영의 속삭임에 충실히 순종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어쩌면 병원에서의 그 경험은 세월이 지난 후에도 그분의 마음에 남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서 한 스테이크 회장을 방문했을 때 여느 때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원래 그 주말에 다른 스테이크를 방문하도록 지명되어 있었으나, 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이셨던 에즈라 테프트 벤슨(1899~1994년) 회장님께서, “몬슨 형제님, 저는 형제님이 루이지애나 슈리브포트 스테이크를 방문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하고 말씀하셨을 때, 몬슨 장로님은 그곳에 어떤 특별히 중요한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슈리브포트에 도착한 몬슨 장로님은 말기 암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10살 난 크리스털 메트빈이 특정한 총관리 역원, 즉

자신에게서 축복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대회 일정표를 살펴보고 130킬로미터나 되는 크리스털의 집까지 다녀 올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스테이크 회장에게 스테이크 회장을 하는 동안 공식 기도회 크리스털을 포함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메트빈 가족은 이동 거리가 너무 멀다는 문제를 알고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몬슨 장로님은 토요일 저녁 지도자 모임에서 전할 말씀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때의 일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십니다. “저는 제 영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간단했는데,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가복음 10:14)라는 익숙한 말씀이었습니다.” 스테이크 회장의 도움으로 다음날 아침 메트빈의 집을 방문하는 일이 신속하게 계획되었습니다. 그것은 참여한 사람들에게 엄숙하고 신성한 경험이었습니다. 크리스털은 원하던 축복을 받은 지 겨우 나흘 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종종, 이러한 사건들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몬슨 장로님은 1975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 중에 크리스털의 이야기를 전하셨습니다. 태버내를 발코니에 있는 크리스털 나이 정도의 어린 금발 소녀를 보시면서, 그분은 그녀에게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리스털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 주신 것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신 후, 몬슨 장로님은 이렇게 끝맺으셨습니다. “저는 위층 발코니에 있는 나의 어린 친구와 모든 곳에 있는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나사렛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응답하신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몬슨 장로님이 그 대회 모임을 마치고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오셨을 때, 그분은 발코니에 있던 그 어린 금발의 소녀가 할머니와 함께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는 침례를 받아야 할 지에 관해 결정해야 했는데, 그녀와 가까운 누군가가 그녀에게 18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권고했습니다. 소녀는 예수께서 답을 찾으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는 신앙을 갖고 할머니께 대회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몬슨 장로님의 손을 잡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은 하나님이 제 기도응답하도록 도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소녀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토마스 몬슨 회장님의 성역을 통해, 영의 속삭임에 응답하는 가운데 일상적으로 되풀이되는 극적인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즉, 소망하던 축복을 주기 위해 적시에 방문하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누군가의 필요사항에 부응해 주고, 누군가 도움이 가장 필요한 때에 지도자와 회원들로부터 그 도움을 받도록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이러한 일들이 성신의 역사를 통해 온 것이지, 자신의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을 통해 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감격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감미로운 느낌은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어깨 위에 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소년 시절에 받은 축복사의 축복에서, 저는 분별의 영을 지니게 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는 생애에서 그러한 축복이 풍성하게 성취되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젊어서 배우기 시작한 그 교훈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강화되고 확대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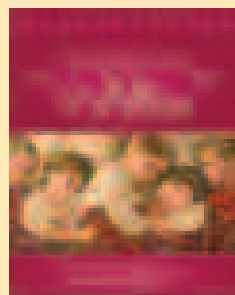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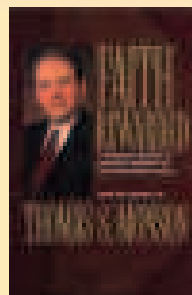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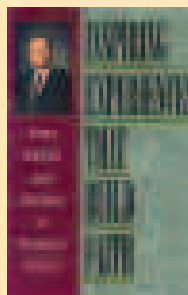
평생 봉사로의 부름

우리는 젊은 토마스가 여러 지도자의 직책에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 22세에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뷰 스테이크의 제6~7와드 감독으로 부름 받으셨습니다. 27세에는 그 스테이크의 회장단 보좌로 부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직책에서 봉사하던 중, 31세 되던 해에 캐나다 선교부의 회장으로 부름 받으셨습니다. 선교부를 감리한 후 그분은 돌아와서 고등학교와 본부 교회 위원회에서 봉사하도록 부름 받으셨습니다. 불과 1년이 조금 지났을 때인 36세의 나이에 그분은 거룩한 사도직에 부름 받으셨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이라는 사람이 1963년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부름 받았을 때, 그분의 배경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은 그분이 혜성처럼 나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1910년 조셉 필딩 스미스가 33세의 나이로 부름을 받은 이래 사도직에 부름 받은 가장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몬슨 장로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분이 그 직분에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과 교회 지도자들과의 관계는 그분 생애의 초반기에 시작되었습니다. 해롤드 비 리(1899~1973년) 회장님은 한때 그의 스테이크 회장이셨습니다. 1950년에 톰 몬슨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도움을 구하기 위해 친분이 있는,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톰은 2차 대전이

끝난 후 해군 예비대에서 서무계 하사관으로 복무하면서 해군 소위 임명을 제의받았습니다. 그의 소속 부대가 임무 수행에 들어갈 경우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게 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제의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리 장로님이 그에게 소위 임관을 거절하고 해군에서 사임하라고 권고하셨을 때, 톰은 장교 임관이 자신이 간절히 추구했던 승진이었기 때문에 그



토마스 에스 몬슨의 저서들

- Pathways to Perfection*(완전에 이르는 길), 1973, 1976년
- Behold Thy Mother*(보라 네 어머니라), 1976년
- In Search of the Christmas Spirit*(기독교 정신을 찾아서), 1977, 2007년
- Be Your Best Self*(최고가 되십시오), 1979년
- Conference Classics*(대회 고전), 1권, 1981년
- Honor Thy Mother*(네 어머니를 공경하라), 1981년
- Christmas Gifts, Christmas Blessings*(성탄절 선물, 성탄절 축복), 1983년
- Conference Classics*(대회 고전), 2권, 1983년
- Conference Classics*(대회 고전), 3권, 1984년
- Favorite Quotations from the Collection of Thomas S. Monson*
(토마스 에스 몬슨의 말씀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인용구 모음), 1985년
- Invitation to Live the Good Life*(선한 삶으로의 초대), 1988, 1993년
- The Church in a Changing World*(변화하는 세계에서의 교회), 1989년
- The Search for Jesus: A Christmas Message*(예수를 찾아서: 성탄절 메시지), 1992년
- Inspiring Experiences That Build Faith*(신앙을 쌓는 고무적인 경험들), 1994년
- Faith Rewarded: A Personal Account of Prophetic*
Promises to the East German Saints
(보상 받은 신앙: 동독 성도들에게 주는 선지자의 약속에 대한 개인적인 기록) 1996년
- An Invitation to Exaltation*(승영으로의 초대), 1997년
- Meeting Your Goliath*(자신의 골리앗을 만남), 1997년
- A Christmas Dress for Ellen*(엘렌을 위한 성탄절 드레스), 1998, 2004년



헝클리 회장과 몬슨 회장이 1999년 5월 25일에 뉴욕 팔마이라 성전 기공식에서 어린 회원의 도움을 받고 있다.

결정을 놓고 고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톰이 얼마 후 감독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를 성별하신 리 장로님은, 톰이 해군에서 복무했다면 그에게 감독 부름이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추측하건대 그 이후의 중요한 부름들도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토마스 몬슨의 장남 톰의 가운데 이름은 리 장로님에게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몬슨의 둘째 아들 클라크는 다른 친한 가족으로서 제일회장단의 보좌였던 제이 르우벤 클라크(1871~1961년) 회장님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인쇄업자로서, 톰 몬슨은 클라크 회장님과 함께 교회 지도자들의 많은 저서를 제작했으며, 이 중에는 획기적인 저서인 *Our Lord of the Gospels*(우리 복음의 주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방불케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톰 몬슨은 또한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그랜드 리차즈(1886~1983년) 장로를 알고 칭송하게 되었습니다. 토론토에서 선교부를 감리하는 동안, 몬슨 회장은 캐나다 사업가이자

정부 관리인 네이든 엘돈 태너(1898~1982년)를 알게 되었습니다. 1963년에 십이사도 정원회에 계시던 태너 회장님이 데이비드 오 맥케이(1873~1970년) 회장님의 보좌로서 제일회장단에 부름을 받으시게 되자 토마스 몬슨이 그 정원회의 공석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선교부 회장으로서의 봉사를 마치고 다시 솔트레이크시티로 돌아온 몬슨 형제는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스펜서 더블류 김볼(1895~1985년) 장로님이 감독하시던 교회의 신권 선교사 위원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토마스 몬슨은 또한 태너 장로님이 이끌던 신권 계보 위원회에서 봉사했습니다. 후에 그는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셨으며 이후 제일회장단의 보좌가 되신 매리온 지 롬니(1897~1988년) 장로님이 이끌던 성인 협의 위원회와 신권 가정 복음 교육 위원회에서 봉사했습니다. 몬슨 형제는 교회 위원회에 너무나 많이 관여해 있었기 때문에 십이사도 정원회에 부름을 받던 그날에도 자신이 맡은 위원회 일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맥케이 회장님의 사무실에 가는 것으로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학습자, 그리고 교사

교회 지도자들과 교류하던 초기에, 몬슨 장로님은 열심히 그리고 신속하게 배우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봉사하는 능력과 역량은 정원회의 형제들에게 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김볼 회장님은 그를 가리켜 “참으로 ‘행하는’ 사람”, 즉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하는 사람”이라 칭하셨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1915~1985년) 장로님은 한때 그를 가리켜 “교회 행정의 천재”라고 일컬으셨습니다.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고, 후에 제일회장단에서 함께 일하신 제임스 이 파우스트(1920~2007년) 장로님은 다른 사람에 대한 그분의 훌륭한 충성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생각이나 마음은 그 어떤 것도 잊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을 잊지 않습니다.”

1996년

솔트레이크 커뮤니티 대학교에서 명예 인문학 박사 학위를 받음.

1997년

유타 주 방위군으로부터 미니트맨(Minuteman) 상을 받음.

(역자 주: 평소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필요할 때 '1분 안에 군인으로 돌변하여 도움을 주는 민병대'에서 유래한 말. 현재는 지역 사회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이 상을 수여하고 있다.)

브리검 영 대학교의 모범 남성상을 받음.

1998년

몬슨 자매와 함께 성요셉 자선 수녀회(아래)가 수여하는 복지 인도주의 상을 받음.



2000년

여섯 개의 성전을 헌납함.

2003년 4월 24일

브리검 영 대학교 역사상
최다 졸업생들이 배출된
졸업식에서 말씀을 전함.

2005년 10월 21일

BYU-하와이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영적인 말씀을 전함.

2007년

로터리 국제대회에서 특별
범세계적 인도주의 상을
받음.

유타 대학교에서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음.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1926~2004년) 장로님은 토마스 몬슨 장로님에 대해 그분의 행정 및 집행 능력은 “천부적이며 내적인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어떤 문제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그 의미를 간직하는 데 2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의 문제를 놓고 그 포장지를 벗기려고 애를 쓸 때 그는 이미 그 내용물을 먹어치웠습니다.” 몬슨 회장이 십이사도 정원회에 속해 있던 시절에 늘 그분의 옆 자리에 앉았던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제게 교회의 평의회를 통해 민감한 문제를 신중하게 지시할 사람이 필요하다면, 토마스 에스 몬슨이야말로 제가 그 일을 부탁할 책임자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하는 동안, 몬슨 회장은 성인 협의 위원회, 선교사 집행 위원회 및 교회 복지 집행 위원회 등의 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복지 문제에 대한 그분의 관심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은 솔트레이크 밸리와 전 세계의 교회 필요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교회가 관여함에 있어서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그분의 관심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새 옷을 살 수 없는 궁핍한 회원들에게 실제로 옷을 벗어 주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의 봉사는 종종 사람들 모르게 행해집니다. 그분의 딸 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일들이 은밀하게 행해졌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그러한 경험들을 그분들의 아들이나 딸들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녀인 우리도 아버지가 하신 모든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서, 몬슨 장로님은 또한 지도자 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위원장의 책임은 총관리 역원들이 교회 프로그램에 대해 훈련을 받고 그 받은 훈련을 스테이크 대회에서 전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으로서 정원회에서 봉사하신 선임 지도자들의 열렬하고 유능한 학생이었던지, 그분은 그를 뒤따르는

우리를 기꺼이 가르치는 유능한 교사였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후임 사도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다른 사도들과 더불어) 몬슨 회장님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열의, 세심한 배려, 평생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개인적인 교훈, 그리고 다른 많은 영향력들이 제게 큰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특히 그러한 영향력들이 오랜 세월을 걸쳐 젊은 나이에 사도로 부름 받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에서 우리는, 그분이 솔트레이크시티 서부 지역에서 첫번째 친구들에게 가졌던 만큼의 충성심을 우리에게도 가지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몬슨 회장은 20대 초반 이래로 교회의 청소년들을 위해 봉사하고 강화하는 일에 관여해 오셨습니다. 청소년들의 영적인 복지에 대한 그분의 관심은 개인적인 활동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그분은 1969년 이래로 미국 소년단 전국 집행 위원회에서 봉사하셨으며, 이 봉사로 그분은 국내외의 소년단 최고상을 받으셨습니다.

교회 부름에서의 봉사를 통해, 그분은 세계





맨 위: 몬슨 회장이 BYU에서 영적인 말씀을 전함. 위: 몬슨 회장과 부인 프란시스가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연례 개척자의 날 시가 행진을 하면서 줄지어 선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왼쪽: 몬슨 회장 부부가 지난 해에 있었던 80회 생일 축하 모임에서 함께 포즈를 취했다.

전역의 정부, 사업계 및 민간 업무에 종사하는 지도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으며, 결과적으로 교회를 대변하는 영향력 있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성취하신 특별한 일 한 가지는 이전의 독일 민주 공화국(동독)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낸 일이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성취로 그분은 또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 그 정부로부터 후기 성도 선교사들이 그 나라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몬슨 회장의 성역은 공식적인 기록에 오를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 기록은 노소를 막론하고 충실한 후기 성도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분의 말씀과 저서에서 사람들을 고양시키는 여러 이야기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들이 현대의 비유를 훌륭하게 그려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야기 가운데 많은 내용이 수집되어 1994년에 *Inspiring Experiences That Build Faith: From the Life and Ministry of Thomas S. Monson* (신앙을 쌓는 고무적인 경험들: 토마스 에스 몬슨의 생애와 성역에서)라는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목차 다음 페이지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라는 머리글이 있습니다. 이 머리글 아래에는 잘 알려진 구절인 모사야서 2장 17절,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길 때 너희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임 … 이니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의 생애와 잘 어울리는 영적인 권고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마음속 깊이 느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 말씀에 따라 생활하십니다.

평생의 서약

오랜 봉사의 세월 동안, 몬슨 회장은 1963년 10월 4일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으로 지지받으면서 맺었던 서약을 잘 지켜오셨습니다. 총관리 역원으로서 처음으로 태버네클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맥케이 회장님, 오늘 제가 드리는 진지한 기도는 항상 회장님과 여기 계신 사도님들에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의 생명, 제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걸고 서약합니다. 회장님께서 바라시는 제가 되기 위해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다음의 말씀에 감사 드립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 리라”(요한계시록 3:20)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제 생애가 우리의 구주께서 하신 약속에 합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이 교회를 인도하며, 몬슨 회장은 2007년 9월 본부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자매들에게 하신 다음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에 적합한 일을 얻기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능력을 얻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직무]에 대한 성과가 기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기적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자질이 부족하다거나 부적합하다고 의의를 제기할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 그분은 1996년 4월 연차 대회에서 하신 다음 가르침을 덧붙이실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 2월 3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6대 회장으로 성별됨.

2008년 2월 10일

아이다호 렉스버그 성전(아래)을 헌납함.



2008년 2월 4일 교회 본부 건물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몬슨 회장은 교회 회장으로,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왼쪽)은 제1보좌로, 다이어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오른쪽)은 제2보좌로 소개되었다.

여러분의 것도 아니고 저의 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바로 주님의 사업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심부름을 할 때,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시든 자격을 갖추도록 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현재의 부름을 수행할 자격을 갖추도록 해 주셨다는 것은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명한 일입니다.

제일회장단에 부름을 받던 해인 1985년에, 그분은 가족에게 자신의 일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 일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삶을 돌이켜 보면, 나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해 오셨음을 바로 알 수 있다. 그분의 주의 깊은 보살핌과 약속된 축복들은 나에게

기꺼운 은사였다. 그분의 다음 말씀은 내 삶에 녹아 있었다. ‘내가 너희 앞서 나아갈 것임이라. 나는 너희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있을 것이요, 나의 영은 너희 마음속에 있을 것이요, 나의 천사들은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받쳐 주리라.’(교리와 성약 84:88)”

사랑하는 아내와 그들의 자녀 및 손자손녀들에게 감사를 전한 후,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나는 항상 ‘주님의 심부름을 하느’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23년 전에 언급된 그 간절한 소망은 이제 확실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토마스 스펜서 몬슨 회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분이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께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듯이, 나머지 생애를 그렇게 보내실 것입니다. 그분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것이며, 매일 그 거룩한 성역을 인도해 줄,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의 영감을 받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

KOREAN

